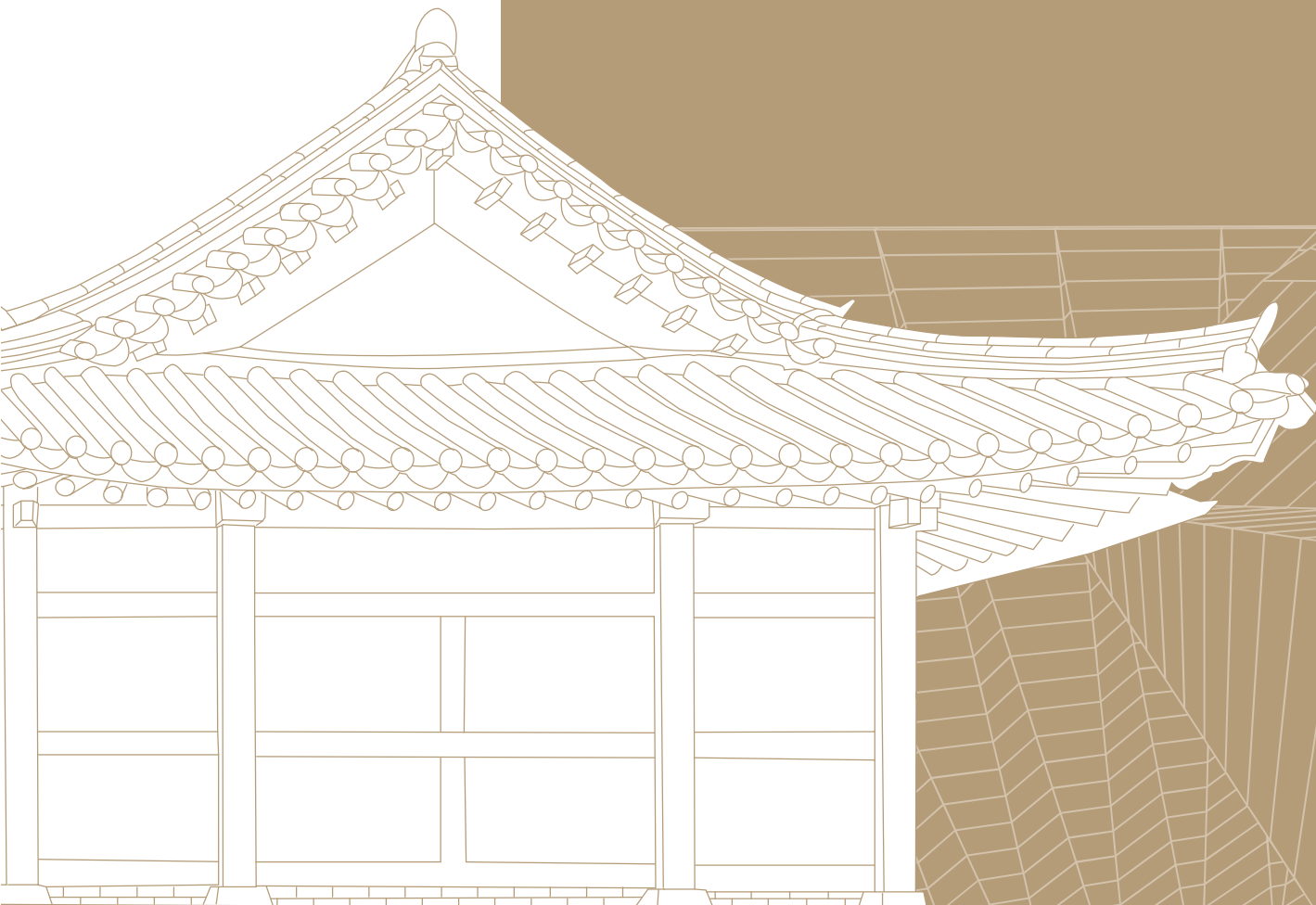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8 Korea Hanok Competition



진행과정

공모 공고

2018년 6월 11일

작품접수

2018년 7월 30일 ~ 8월 2일

심사

[준공부문]

1차: 2018년 8월 13일

2차: 2018년 8월 21일 ~ 22일

[계획부문]

1차: 2018년 8월 13일

2차: 2018년 8월 31일

시상식

2018년 10월 5일

전시회

[1차 전시회]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018년 10월 5일 ~ 10월 7일

[2차 전시회] 공항철도 공덕역

2018년 10월 8일 ~ 10월 15일

운영 및 심사위원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전봉희 교수(위원장)
김재경 포토그래프	김재경 대표
아름터건축사사무소	김석순 대표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전보림 대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

심사위원

[준공 및 계획 부문]

서울대학교	전봉희 교수(위원장)
아름터건축사사무소	김석순 대표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전보림 대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

[사진부문]

서울대학교	전봉희 교수
김재경 포토그래프	김재경 대표
한국건축사진가회	윤준환 회장

기획의도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옥, 길을 만나다”

한옥은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외래의 새로운 건축 형식이 소개되면서, 이와 구분되는 재래의 건축을 총칭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다. 다시 말해 한옥은 양옥과 한낱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말이고, 그러고 보면 한복과 양복, 한식과 양식도 마찬가지로이다.

이후 근대적 기능을 갖는 학교와 관 청, 병원과 사무소, 상점 등이 새로운 건축 형식으로 지어지면서 한옥은 주택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그나마도 1960년대 이후로는 양옥과 아파트에 자리를 내어주었다. 즉, 한옥이 근대의 세례를 받았던 시기는 길게 보아도 80년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도 그 절반 정도는 국가적인 건축 활동을 식민정부가 주도한 시기였다.

만약 한옥이 좀 더 오랜 기간 근대 도시를 경험하였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한옥들이 등장하였을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20세기 전반기에 생겨난 2층 한옥 상가와 도시형 한옥이 당대의 사회적 수요와 기술적 수준 속에서 찾아낸 최선의 일반해였던 것에 비하여, 최근 소수의 애호가적 취미에 맞춰 지어지는 한옥들은 억지로 시대를 거슬러 가는 퇴행성이 보여 안타깝다.

정통성과 순수함에 대한 강박이 없이 자율적으로 진화한 한옥의 현대형을 찾아보는 것이 이번 공모전의 주제이다. 현대 도시가 갖는 상업적 밀도에 대응하는 가로변의 소규모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어느 곳에서나 있을법한 대지에 어느 곳에서도 작동할 만한, 그러면서 한옥이어야 하는 이 곤란한 문제는 결국, 무엇이 남고 무엇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차례

진행과정 / 운영 및 심사위원	2
기획의도 / 차례	3
심사위원장 심사평	4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8
올해의 한옥상	12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22
	특별상	28
	금상	32
	은상	36
	동상	44
청소년	입선	52
	특별상	64
	금상	66
	은상	68
	동상	70
	입선	72

계획부문

대상	76
특별상	80
금상	82
은상	84
동상	88
입선	94

심사위원장 심사평

올해의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주제는 '한옥, 길을 만나다'였습니다. 길을 만난다는 표현은 근대화, 좀 더 직접적으로는 도시화에 대응한 한옥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외부의 지원에 의해 연명하는 한옥이 아닌 현장에서 건강하게 작동하는 한옥에 대한 희망을 에둘러 말한 것이고, 전통적 형태와 공간의 재현이라는 당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용성과 경제성을 갖춘 상품적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현재 애호가 주택 혹은 전통 문화 관련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한옥 건축의 건설을 일상 도시 속으로 확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과제의 핵심이고, 진정한 '법고창신'의 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건축의 계획부문과 준공부문, 그리고 사진 부문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건축 계획 부문은 주제에 맞추어 새롭게 계획한 설계안을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막 한옥 건축의 길에 접어드는 학생과 신인 집단에서 주로 응모를 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전체 주제에 맞추어 대지의 조건을 가로에 접한 두 필지 이내로 제한하고, 용도도 기존에 그 자리에 있던 상업 기능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또 공고 이후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응모작의 수가 예년에 비하여 줄었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상한 작품들은 주제를 잘 인식하고 대지에 맞는 특수한 해결안을 선보이면서도 도심부 상업 지역에 들어설만한 개연성을 갖춘 훌륭한 것들이었습니다. 좀 더 일찍 공모전의 주제를 제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준다면, 매년 엇비슷한 제안들이 반복되는 일을 예방하고 참신하고 도전적인 안의 출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지어진 한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가나 사용자, 시공자 모두를 시상하고 또 이들 중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한옥이 완성되는데 이들 중 누구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수상작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의 특별한 점으로, 이른바 한옥 건축가로 널리 알려진, 그러므로 이미 여러 차례 수상한 작가의 출품이 줄어든 대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젊은 세대들의 출품이 많아지고 또 수상작의 범위 안으로 대거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옥 건축가의 확산 또는 계승을 알려주는 신호로 보여서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정부에서 한옥 건축의 진흥을 도모한 지 벌써 10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수상자로 진입하는 건축가들은 정부의 한옥 진흥책 시행 이후에 시장에 진입한 세대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 인력의 세대 이전이야말로 앞으로도 이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해갈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부문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우리들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한옥의 아름다움을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사진가들의 능력에 새삼 놀라움과 존경심이 드는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 3개의 연작으로 훌륭하게 하는 공모

방식은 작가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관찰을 요구하는 것으로 효과가 커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올해의 출품작 가운데는 계절을 달리 하면서 하나의 장소를 계속해서 관찰한 것, 하나의 주제를 규모와 앵글을 달리하면서 비교적 시각을 부각한 것, 그리고 드론을 활용하여 부감 시점을 보여주는 것 등 다양한 시도가 선보였습니다. 다만, 점차 차별성이 적어지는 학생부와 일반부의 구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차 심사는 2018년 8월 13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건축 계획부문과 준공부문, 그리고 사진 부문 일반부와 청소년부의 순으로 연이어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건축 부문에 김석순 아키텍처건축 대표, 전보림 아이디알건축 대표, 신치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이경석 국토부 과장 등이, 사진 부문은 김재경 작가와 윤준환 작가가 참여하였고, 전봉희 교수는 심사위원장으로 두 부문 심사 모두에 참여하였습니다.

건축 계획 부문에는 28개 출품작에 대한 패널 심사를 통하여 16개 작품을 2차 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준공 부문에는 17개 출품작에 대한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하여 9개 작품을 2차 현장 방문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진 사진 부문은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우수한 작품들을 걸러내는 1차 심사, 선정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본상 수상 범위 내에 드는 것을 추려내는 2차 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의 순위를 결정하는 3차 심사를 연말에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인부에서는 157개 작품 가운데 18작품, 청소년부에 36개 작품 가운데 11 작품이 수상하였으니 경쟁률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 계획 부문에 대한 2차 심사는 8월 31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출품자들은 그 사이 발전시킨 수정안에 대한 모형과 ppt를 추가로 준비하여 발표에 임하였고, 심사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계획의 의도와 출품자의 한옥 건축에 대한 이해도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 준공 부문에 대한 현장 방문 평가는 8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행되었는데,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설계자의 설명과 함께 사용자나 건축주와 면접을 통하여 구체적인 이용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문별로 진행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심사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각 작품에 대한 간략한 평을 적어 이들의 수상을 축하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 준공 부문입니다. 모두 3작품 밖에 시상하지 못하는 제한 때문에 수상작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그 가운데 올해의 한옥 대상으로 선정된 [장안사랑채]는 도심내 가로변에 면한 공공 공간 겸 임대 상업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제와도 부합하고

작품의 완성도도 두드러지는 사례입니다. 자칫 밋밋해 질 수 있는 긴 일자형의 한옥을 층과 폭을 달리하면서 매스와 공간에 변화를 주고, 또 옛길의 흔적을 쫓아 진입부를 만들고, 대지 후면에 있는 기존의 한옥들과 조화롭게 구성한 점이 특별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의 한옥상은 두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은평 한옥마을에 지어진 생활 한옥인 [함경루]와 종로구의 체험 한옥인 [상춘재]입니다. [함경루]는 일자형의 평면을 활용하여 기능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 모두에서 현대 생활을 위한 한옥의 가능성을 잘 살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좁은 대지에 다채로운 마당을 만들어낸 점도 뛰어났습니다. [상춘재]는 기존 한옥의 일부를 살리면서도, 도시 한옥을 재해석한 증축 부분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온돌과 마루, 부엌과 마당 등 한옥이 갖는 다양한 공간을 선보임과 동시에 한옥의 멋을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장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건축 계획 부문에서는 [적층한옥]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도심부 가로변에 자리한 소규모 필지에 5층으로 올린 단일 매스입니다. 저층부의 높이차를 둔 임대공간과 상층부에 3층으로 쌓아올린 게스트하우스용 한옥 부분의 조형적 연결이 좋을뿐더러 기능적, 구조적으로도 깔끔하게 처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새로운 구조와 재료의 적용에 적극적이었던 점도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위로]는 구조적인 처리와 조형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대지가 처한 장소에 대한 해석이 좋고, 도심내 밀집 상업 공간에 놓일 한옥 목구조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적인 시도가 두드러졌던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금상을 수상한 [첨첨명와] 역시 도심내 한옥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던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현대건축과 한옥의 조합을 앞뒤로 수평적으로 하였는데, 가로변에는 한옥을 두고 배면에 중층의 현대 건축을 배경처럼 넣어 조형과 밀도의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

은상은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과 [ZERO-FIVE]가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앞의 것은 한옥에서 진화한 현대식 목구조를 활용하였고, 뒤의 것은 경량 철골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둘 다 새로운 구조적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진화하는 한옥에 대한 우리 시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작품들이었습니다. 동상은 [2.0 한옥 리노베이션]과 [한옥을 되묻다], 그리고 [옹해야]가 공동 수상하였습니다. 한옥의 조형요소 일부를 새로운 규모와 형태, 기능에 맞추어 재해석하여 적용하는 태도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조형 요소가 생성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단지 형태적 차용에 그친 점이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사진 부문은 올해도 대상이 일반부에서 나왔습니다. 일반부 대상 수상작인 [한옥 속의 풍경]은 현충사에서 촬영한 연작인데, 방문을 통하여 보이는 바깥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벽지와 장판 등 단색으로 되어 있는 실내 공간과 담장과 나무 등의 변화가 많은 외부 공간의 구성적 대비가 좋고, 광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차분하게 표현한 점에서 작가의 역량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상은 안동 근자마을을 대상으로 한 [한옥의 창과 문] 연작입니다. 창이나 문을 근경으로 놓고 그 너머로 보이는 풍경과 대비하였습니다. 클로즈업되어 있는 창과 문의 목질감과 원경의 풍경 모두에서 강한 색채를 느낄 수 있는 박력 있는 작품입니다. 금상은 북촌 한옥마을을 촬영한 [기와지붕 너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기와지붕을 아래에 놓고 그 위 절반에 하늘을 담는 대담한 구도를 사용하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는 우수자입니다.

은상은 [완재정의 봄 그리고 가을]과 [운현궁의 빛과 그림자]가 수상하였습니다. 빛이 그려내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였으며 기법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상은 [공간 그리고 문]과 [외암마을의 사계] 공동 수상입니다. 앞의 작품은 흑백으로 한옥의 질감을 뛰어나게 포착하였고, 뒤의 작품은 드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점으로 한옥의 사계절을 담아내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촬영한 [한옥의 웅장함]이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중앙부에 위치한 누각부분을 강조하여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부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상은 북촌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촬영지인 가회동 31번지 골목길을 촬영한 작품인데, 눈이 온 날의 풍경을 차분하게 담아내었습니다.

청소년부 은상은 [밤의 기다림]과 [오손도손 초가집]이 공동수상하였는데, 앞의 것은 오브제와 배경을 죽이고 실루엣이 강조되는 재미있는 장면을 잡아내었고, 뒤의 작품 역시 촬영 타이밍을 잘 잡아내 흔한 풍경의 색다른 순간을 포착한 점이 뛰어났습니다. 동상은 [걷고 싶은 기나긴 길]과 [정겨운 한옥]에 돌아왔습니다. 둘 다 평범하지만 쉽지 않은 구도를 잘 처리함으로써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수준작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진 부문에서는 입선에 든 작품, 그리고 선외의 출품작 모두에게서 대단히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이 일반인의 진입을 억제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우려마저 있어서, 추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부문을 신설해야한다는 제안마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한달여에 걸친 심사 과정은, 정말로 이런 한옥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한옥이 벌써 이만큼 와있구나, 그리고 한옥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네 등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즐거운 기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출품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하며, 그 길을 같이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한옥인의 한 사람으로서 공모전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주신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10월

심사위원장 전봉희
서울대학교 교수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8 Korea Hanok Competition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한옥형 스트리트몰_ 장안사랑채

김미진 이소건축사사무소(주)

수원은 18c 수원화성으로 대표되는 전통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도시이다. 이러한 역사도시 수원에 그 모습을 담은 한옥형 스트리트몰 '장안사랑채'를 준공하였다.

대지는 장안문을 들어서면 바로 접하게 되는 기존 한옥 문화시설의 전면 공지로, 한옥기술전시관 까지 이어지는 공공 한옥 가로 중양에 위치한다. 화려한 기존 한옥을 배경으로 한 대지는 현대적인 도심에 점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으며, '장안사랑채'는 이러한 기존 시설과 가로를 매개하고, 보행자와 문화시설을 연계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의도한 신한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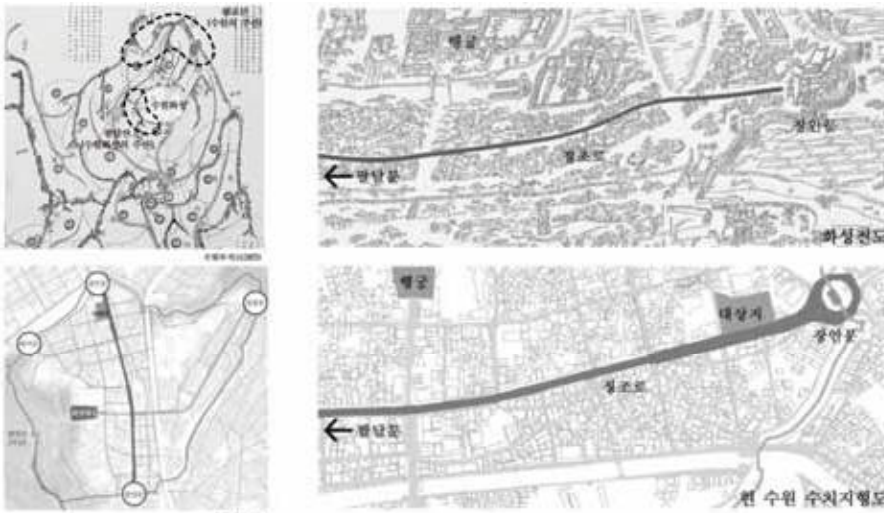
대지 주변에 이미 조성된 공공 한옥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설계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던 부분이다. 우선 가로와 축을 같이하는 간결한 배치로 기존 시설군과의 다양성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한옥과 계획 중인 한옥, 공유할 외부공간을 함께 계획하여 서로의 주요 파사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한옥가도가 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전통 목구조의 특성을 살려 상가별로 높이와 폭을 다르게 구성하는 방법으로 긴 매스를 분절시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였다.

한옥이라는 전통적인 뼈대 위에 이용자를 고려한 무장애 진입 방식과 노약자를 위한 리프트 설치, 유리의 적극적 사용과 더불어 폴딩도어 방식 및 가변벽체를 활용한 공간의 개방성과 확장성 확보, 체계적인 전기 및 설비시설 계획, 그 밖에 신한옥 시공기술의 접목 등 현대적인 건축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33-4외 27필지
대지면적	6,232㎡ (1,885.18평)
연면적	1,968.76㎡ (건폐율 27.33%)
건축면적	1,703.53㎡ (용적률 29.77%)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구조 / 규모	목구조 / 지상2층
최고높이	8m
외부마감	한식시스템창호 / 한식기와



현황분석



“정조로에서 21c 공공문화거리를 꿈꾼다.”

기본계획방향

상징성
수원의 신한옥 / 첫인상 / 21c 새로운 전통 / 변화

공공성
소통 / 가로와 문화시설을 매개하는 공간

역사성
대지 / 정조대로와 수원 옛길

상업성
편의성 / 사용자 중심의 현대적 건축요소

디자인
대응 / 기존 한옥시설물에 대한 양보와 조화



배치 계획



기념품 판매점
· 수원화성의 특성을 살린 공예품 판매

한복대여점
· 예절교육관에 이용객 및 수원화성 관람객 탐방의 수요 연계
· 전통의상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누마루
· 행사 시 누마루 행사 관리공간으로 사용용이
· 행사 마당 위요
· 시각적 개방성 확보

쿠키점
· 최근 선호도가 높은 수제 쿠키를 전통한옥에서 판매

카페
· 예절교육관의 누마루 행사 시 2층에서 관람 용이 및 이용 시 조망 확보
· 2층의 건물을 배피하여 기존 건물과 마당 공간과 대응



기존 한옥시설 매스와 조화
· 크고 작은 매스를 분절시켜 배치
· 모서리 공간을 비워 개방성 확보



내부 마당을 위요하는 매스 배치
· 시선을 차단하지 않는 누마루를 두어 두 개의 마당영역 구분



가로와의 연속성
· 장안문~팔달문을 잇는 정조대로와 축 대응
· 정, 배면의 폴딩도어 개방 시 가로와 내부공간의 통합



옛길을 따라 걷는 주출입구
· 인위적인 대문을 지양하고, 수원 옛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진입공간

배치도 / 평면도



입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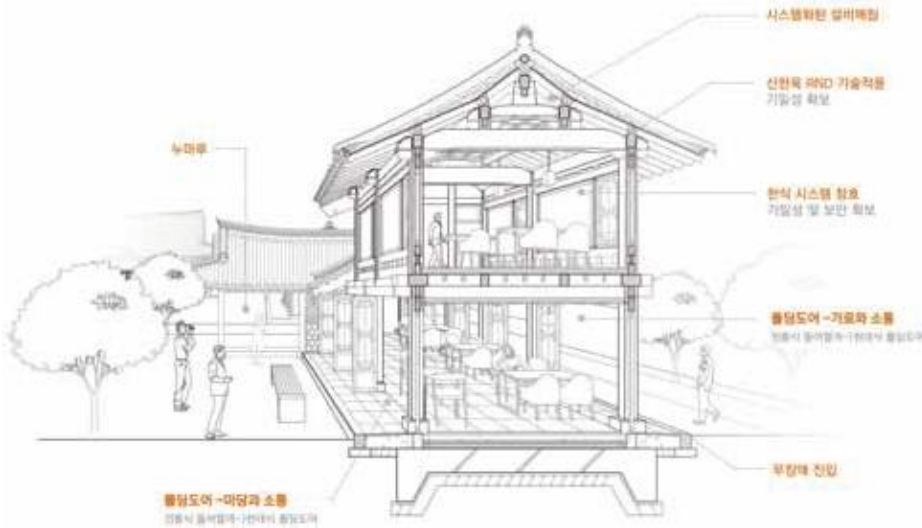


우측면도



배면도





가로변과의 연속성
- 무장에 진입방식
- 기단의 생략, 바닥 패턴화

가로에서 투시되는 기존 한옥시설
- 양측 입면에 유리의 적극적 사용
- 정, 배면의 폴딩도어 개방 시 가로와 내부공간의 통합

관람객 편의 중심의 상가
- 수원화성 관람객을 고려한 상가 용도



올해의 한옥상 함경루

최재복 오드건축사사무소

정통 한옥 한계점 넘기

‘한옥의 정의와 범위’에서 한옥을 문화재 한옥, 정통 한옥, 현대 한옥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통 한옥은 한옥의 형식과 내용을 최대한 살리고 부엌과 욕실을 현대화 하고 설비와 단열등에 현대적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함경루는 이 구분에 의하면 정통 한옥에 속하고 있다.

함경루는 한옥이 가진 전통적 구조는 유지하면서 현대적 기능과 공간적 효율을 높였다. 한옥을 현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변형을 가하는 디자인을 자재하고 디테일에 집중하며 성능과 비례를 소란스럽지 않게 다시 정리하며 기본에 집중한 한옥이다.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1-2-17
용도	단독주택
지역지구	제1종전용주거지역
규모	지상2층, 지하1층
대지면적	248.7㎡
연면적	97.3㎡
지하 1층	44.66㎡
지상 1층	103.88㎡
지상 2층	48.75㎡
높이	8.39m
주구조	전통한식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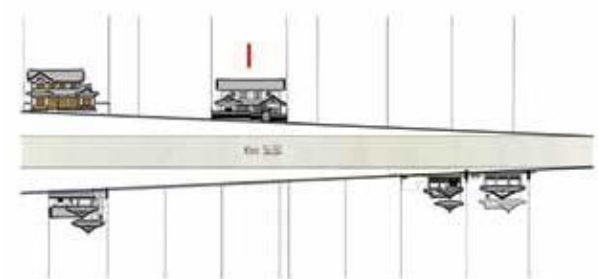
주변 배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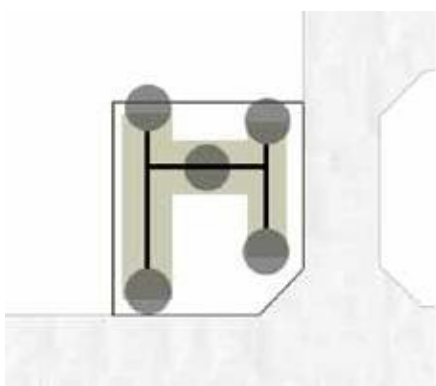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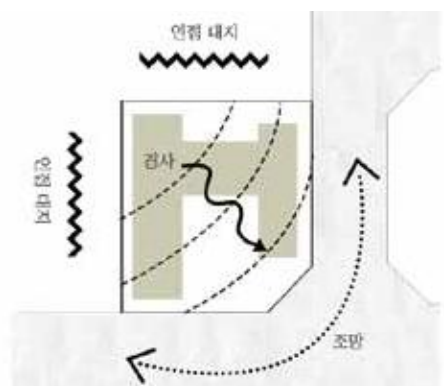


주변 입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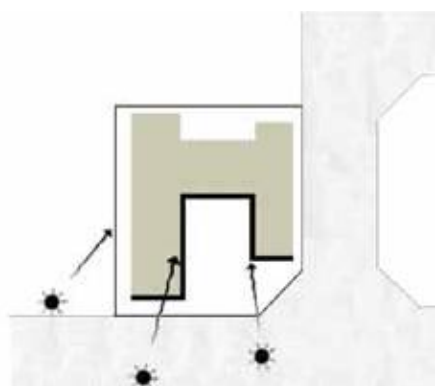




그자 배치



조망 계획



향 계획





열매가 많은 고자 배치

한옥에서 건축주가 방의 개수를 많이 요구하게 되면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단순한 배치일수록 방을 여러 개 만들기 어렵고 겹집으로 복도를 내기는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마당과의 관계도 약해지며 집이 커져 비례도 좋지 않아 진다.

이런 면에서 고자 배치는 매력적이다. 외부와 연계가 좋은 공간이 여럿 생기고 서비스 공간인 화장실 주방 등의 현대적 공간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유리하다. 외부공간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대문과 주차 위치를 분리 할 수 있어 마당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고자 배치는 적절한 대지의 크기를 필요로 한다. 함경루의 대지는 80평 정도로 도시한옥에서 비교적 넓고 형태가 좋아 고자 배치를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크기와 위치를 하고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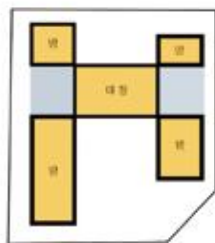
'한옥은 좁다.'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촌한옥처럼 공간이 좁은 의미도 있지만, 한옥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크게 만들기도 부담스럽고 비례가 좋지 않아져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한옥은 시스템창호가 적용되고, 부재치수가 커지고, 층고가 높아지고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한옥이 갖고 있던 익숙한 치수로는 안정감 있는 비례의 창호와 공간을 만나기가 어려워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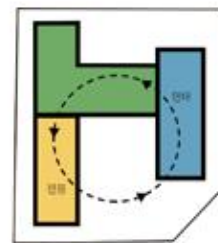
함경루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한옥에 안정감 있는 비례를 가진 창호와 공간을 다시 찾고자 했다.



외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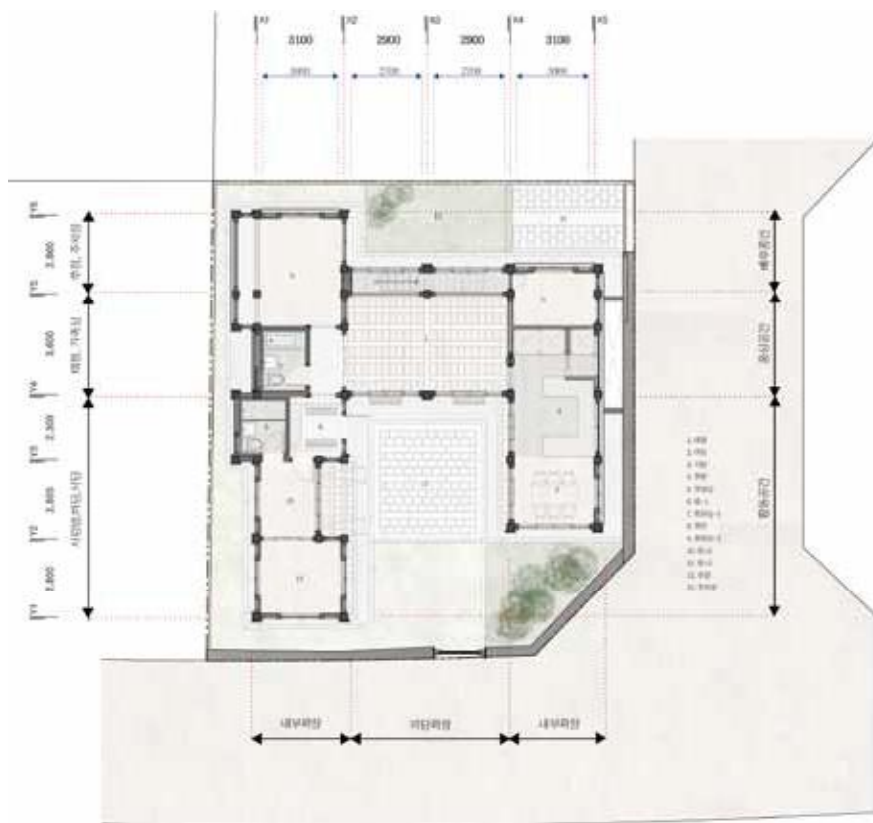


정주공간, 서비스 공간



시간의 흐름





지상1층 평면도



대청 안정적 비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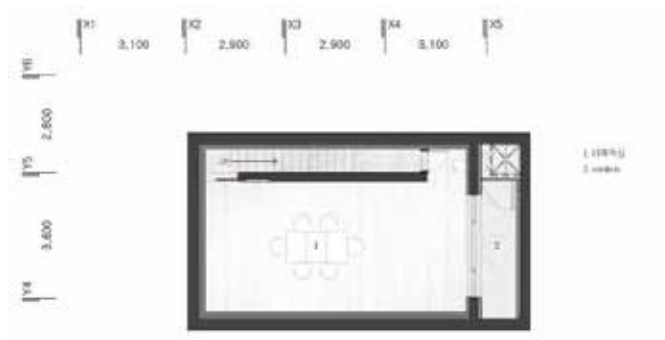


창호 안정적 비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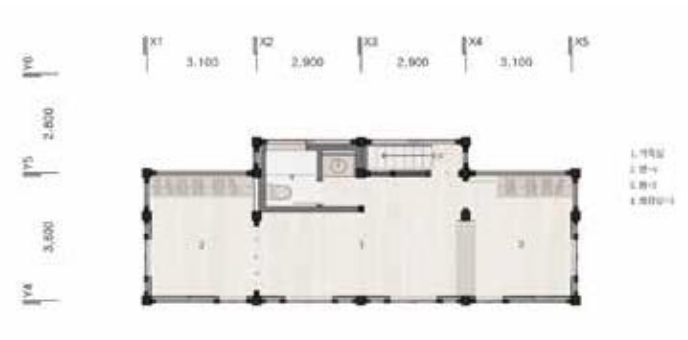


마당 안정적 비례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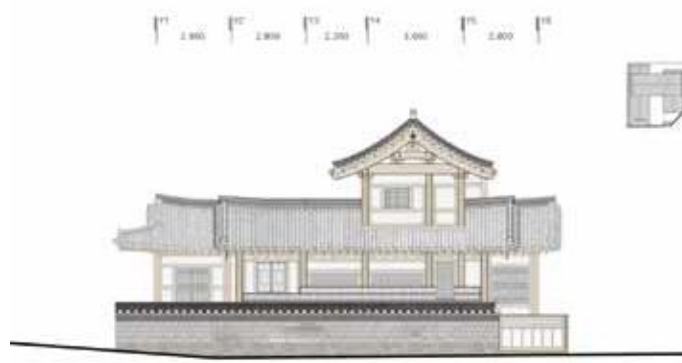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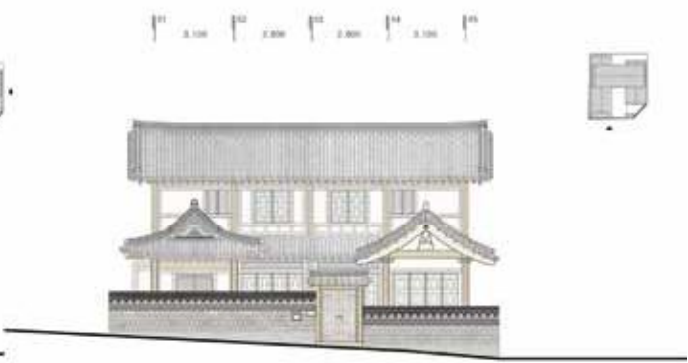
지상2층 평면도



우측면도



남측면도



올해의 한옥상 상촌재, 시간의 켜를 담은 공공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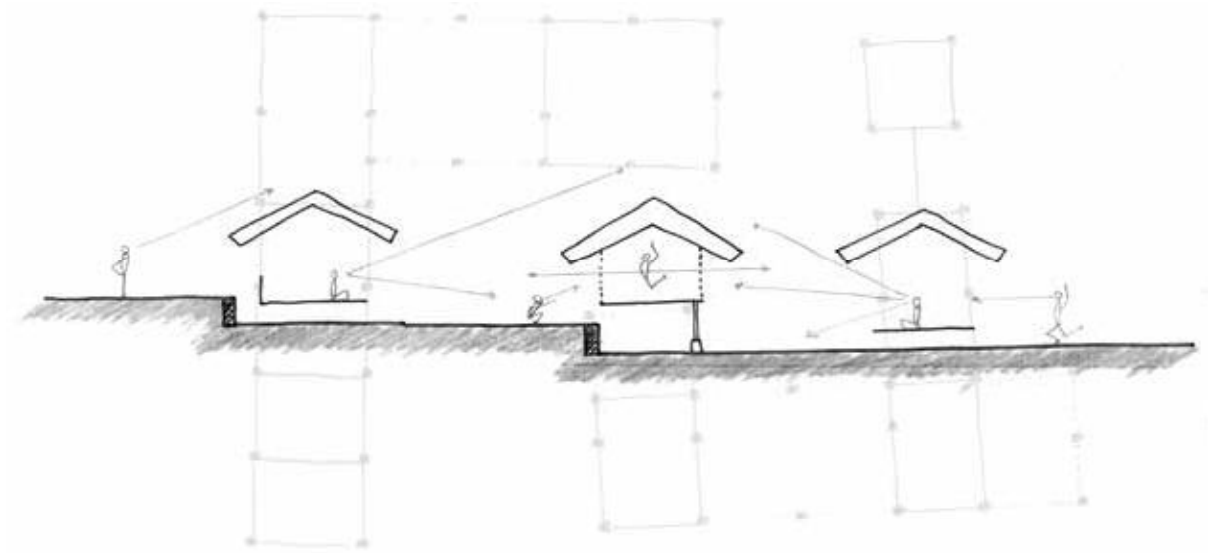
강성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세종마을 풍경만들기

세종마을은 조선 초기 왕족들과 사대부들의 택지, 1900년대 조선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 근대 예술인들의 창작현장이 되어왔으며, 현재 이러한 역사문화자원들을 바탕으로 개량형 한옥과 골목길들이 고유한 풍경을 형성하고 있다.

상촌재는 땅의 기억을 존중하며 들어섬으로써 세종마을의 역사적 맥락과 풍경에 어우러지며 전통 한옥의 생활상을 전할 것이다.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대지면적	466.7㎡
건축면적	138.55㎡
연면적	138.55㎡
건폐율	29.68%
용적률	29.68%
구조	한식목구조
규모	지상1층
용도	체험관



상촌재 서측전경과 북악산 자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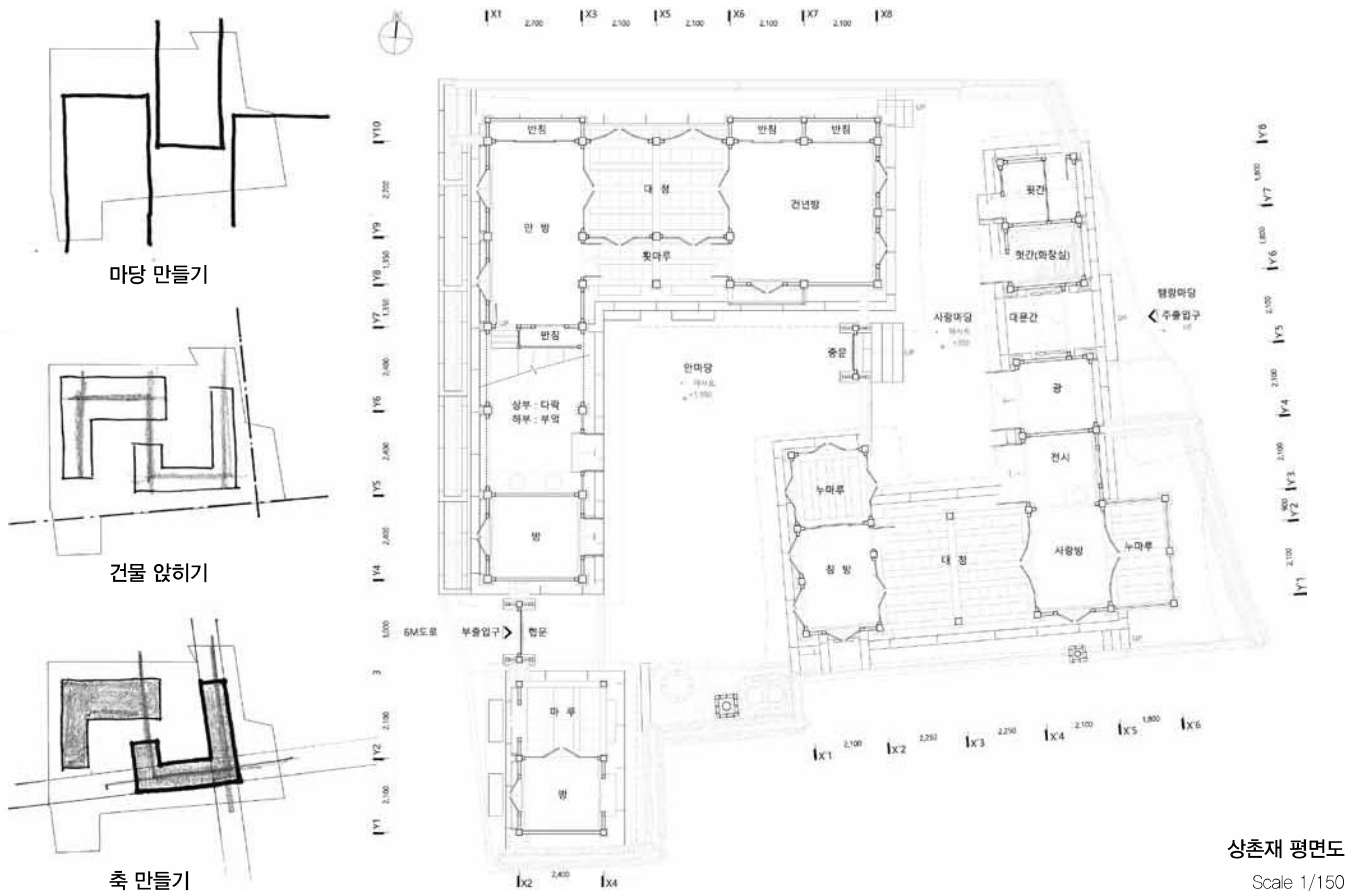




도시조직에 대응하는 한옥의 채와 마당

채와 마당은 기능과 땅의 속성에 따라 배치된다. 지형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계를 가지는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세 개의 마당을 만들고, 안채, 사랑채, 행랑채는 연관된 마당에 열린 구성을 가진다.

안채는 기존 한옥의 축과 형상을 따라 남향의 대청을 가지는 ㄱ자집으로 계획하고, 사랑채와 행랑채는 가로와 필지에 대응하도록 축을 틀어 방문객들을 맞이하도록 하였다. 안마당과 사랑마당은 중문과 내담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누마루를 통해 소통이 가능하다.



마당 만들기

건물 앉히기

축 만들기

'간-채-마당'의 유기적인 공간구조

채는 간으로 분화된다.

방과 방 사이, 마당을 바라보는 대청은 방이나 누마루를 드나들 때 이용하는 전실이면서 여름철에는 거실의 역할을 한다. 방과 마루, 마루와 마당, 마당과 방은 공간적·기능적인 관계를 맺으며 계획되고, 가변적인 개폐방식을 통해 확장 가능하다.



내담과 중문으로 나누어지는 안마당과 사랑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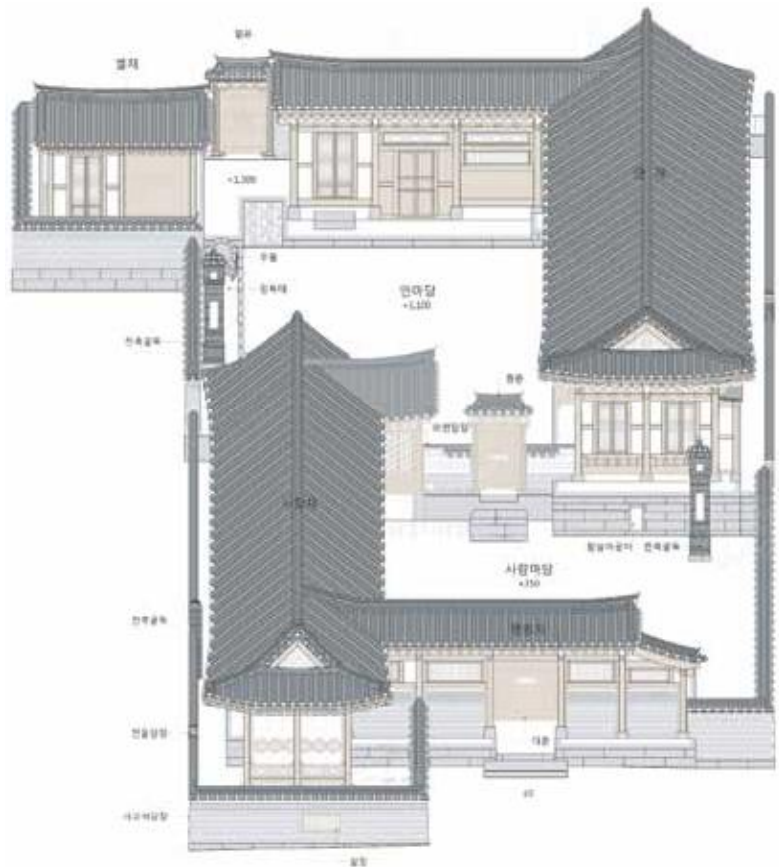
들어열개문을 활짝 열어 대청과 방을 연결한 대공간

중성적 헤프닝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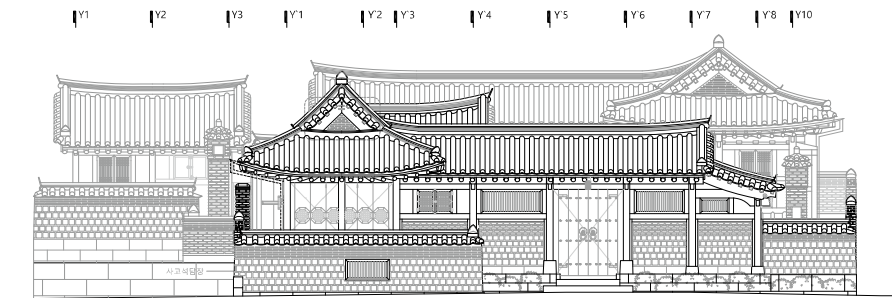
상촌재의 중심공간에 중성(中性)적인 공간을 두었다.

중문과 가까이 위치한 누마루는 채움과 비움, 차단과 확장의 사이에서 모호하고 중성적인 공간이다. 내밀한 8자×8자의 공간으로 인해 다양한 헤프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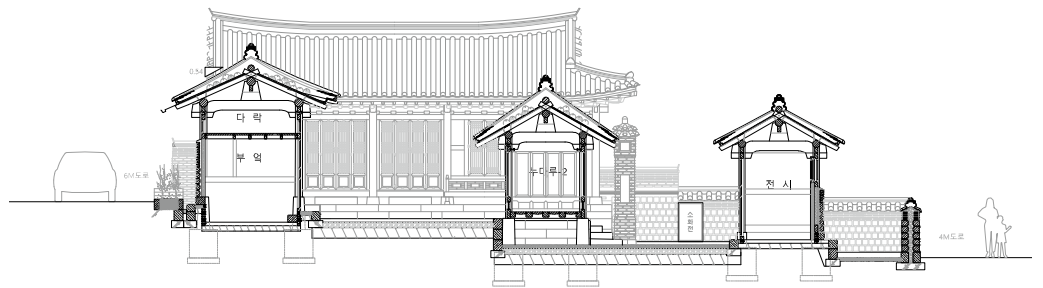
누마루에서 본 안마당(좌)과 사랑마당(우)



상촌재 정면도



상촌재 단면도



안마당에서 진행된 상촌재 개관식

사랑마당에서 열린 재민연희극 '돈도깨비'



열린 누마루에 준비된 전통차 시음 공간

아카이브1.
멸실 한옥의 기록

상촌재가 들어설 대상지는 60년대에 지어진 도시형 한옥이 있던 장소이다. 기획설계단계에서 기존 한옥의 컨텍스트와 간이실측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고,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기존건축물 해체실측 조사보고서'에서 기존 한옥에 대한 아카이브화 및 부재의 재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종로구에서 신축한 신영동의 한옥자재창고가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어 재활용부재를 보관 후 실제 상촌재에 활용하였다.



사랑방의 온돌전시



아카이브2.
온돌 전시를 위한 기록

상촌재가 사라져가는 우수한 온돌문화를 소개하는 곳으로 기능을 하기 위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온돌전시 및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전통방식의 온돌,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온돌, 종로구에서 발굴 조사된 온돌유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전시설계에 반영하였다.



재사용 부재의 보강과 치목



기존 한옥의 대량과 종량이 인체 대청에 재사용된 모습

아카이브3.
공공한옥의 건축과정을 기록

공공한옥으로서의 상촌재를 준공하면서의 전체 건축과정을 '상촌재, 1004일간의 기록'으로 남겼다. 기존 한옥 조사, 해체실측, 재활용부재 수습, 신축한옥과의 결합, 잔존부재의 존치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향후 멸실되는 한옥의 보존과 활용에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8 Korea Hanok Competition

사진부문

일반인







한옥 속의 풍경

이광수 천안 현충사

한옥 속의 풍경

이광수 천안 현충사







한옥 속의 풍경

이광수 천안 현충사

한옥의 창과 문

고수경 경주 종오정





한옥의 창과 문

고수경 안동 군자마을





한옥의 창과 문

고수경 달성군 세거지

기와지붕 너머

이혜지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기와지붕 너머

이혜지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기와지붕 너머

이혜지 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완재정의 봄

박재형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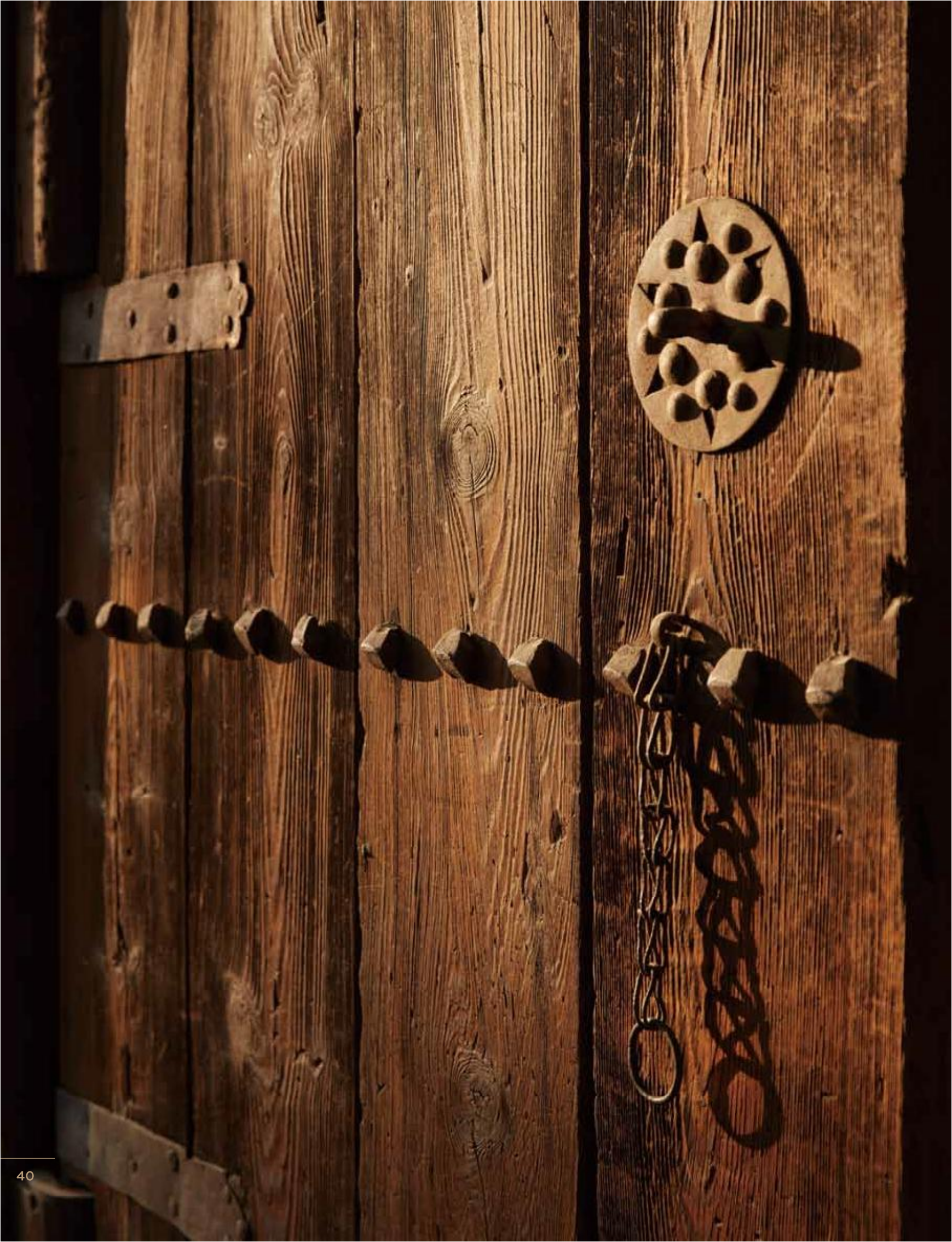
완재정의 봄 그리고 가을

박재형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완재정의 가을

박재형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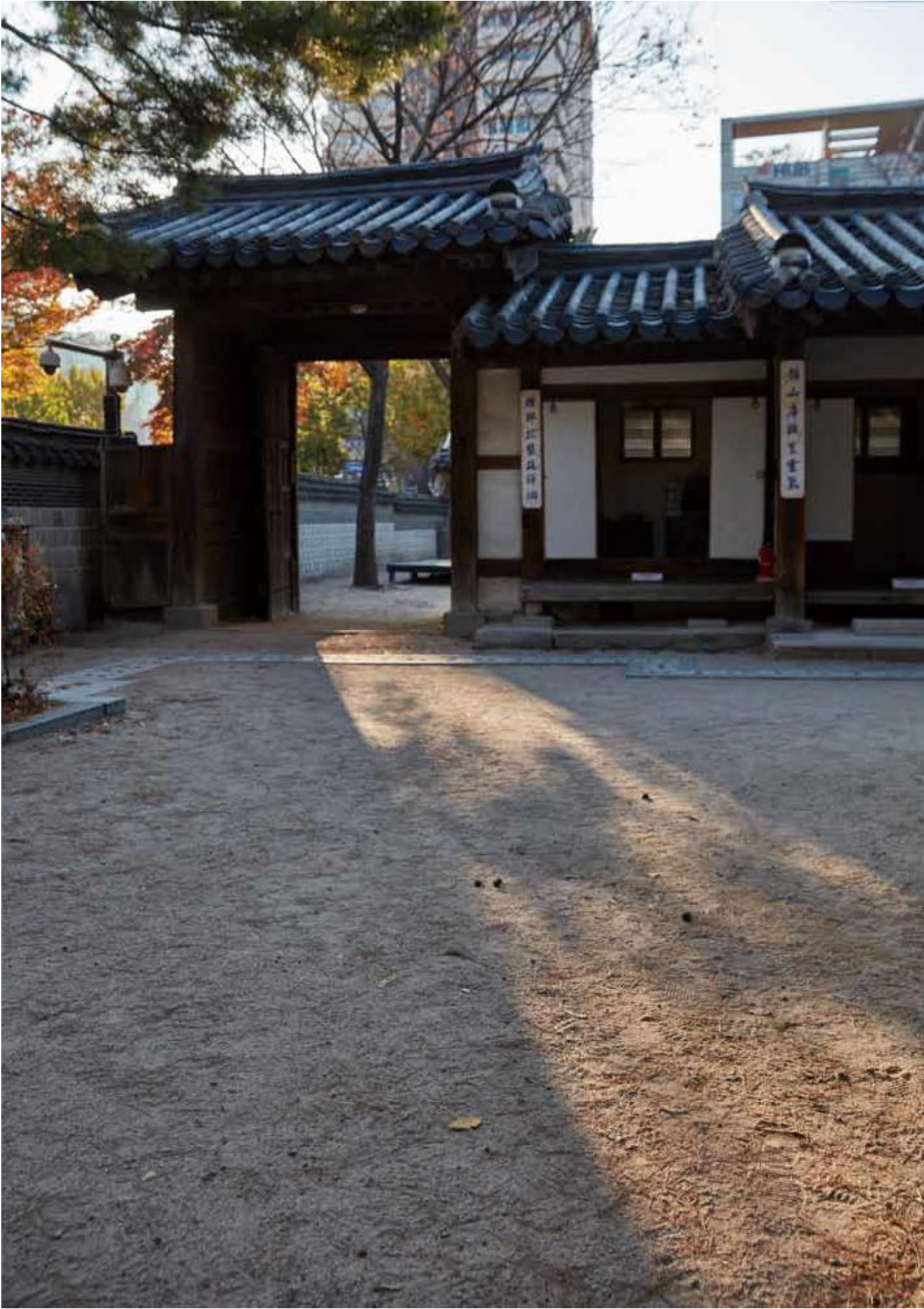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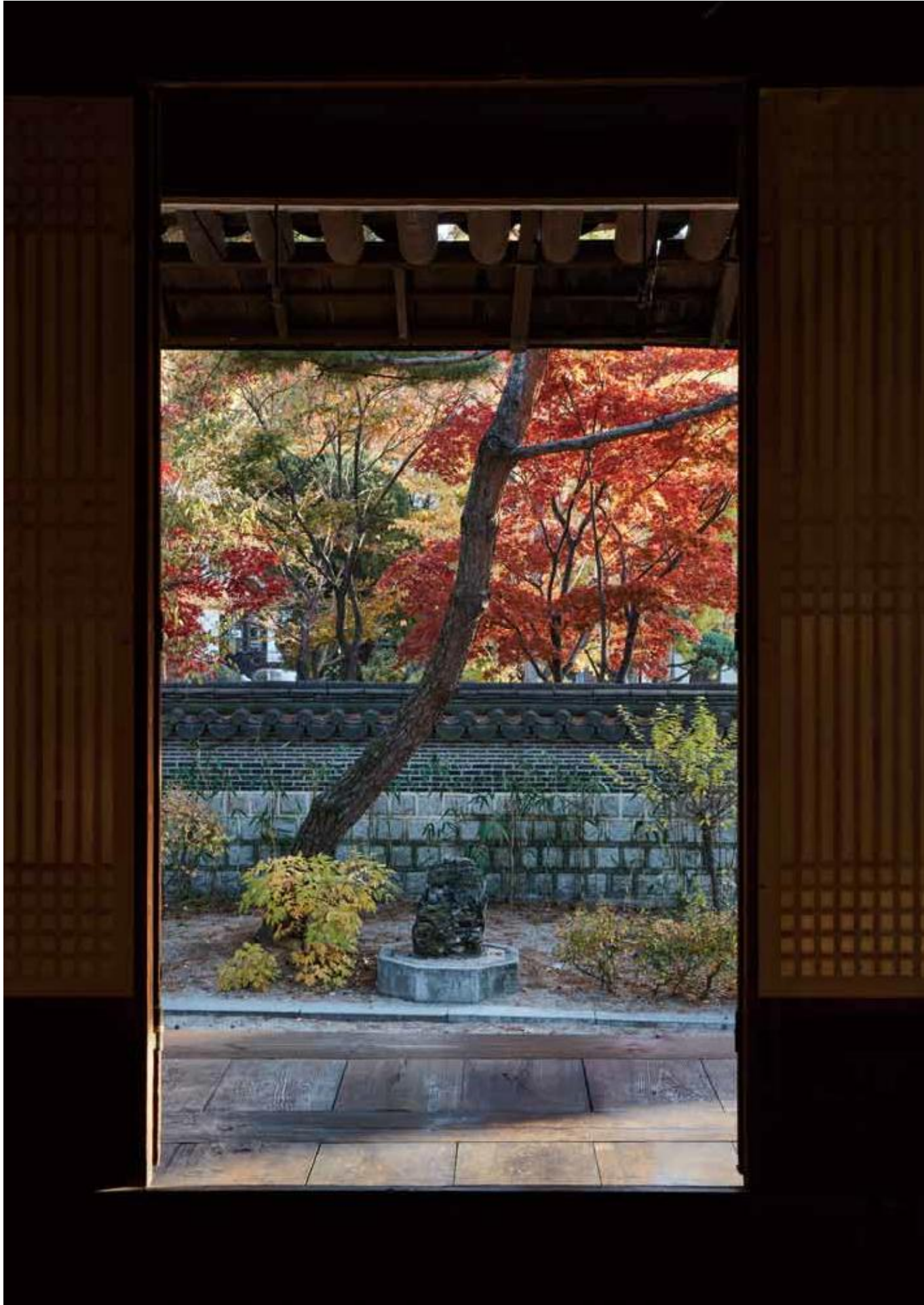
운현궁의 빛과 그림자

한정엽 운현궁 노안당

운현궁의 빛과 그림자

한정엽 운현궁 노안당





운현궁의 빛과 그림자

한정엽 운현궁 노안당

空間 그리고 門

정하완 대구시 동구 둔산동 옷골마을





空間 그리고 門

정하완 대구시 동구 둔산동 옷골마을





空間 그리고 門

정하완 대구시 동구 둔산동 옷골마을





외암마을의 사계
이병만 아산 외암민속마을



외암마을의 사계

이병만 아산 외암민속마을



외암마을의 사계

이병만 아산 외암민속마을



전통의 미와 풍광

김재영 광양시 매화마을



전주시 덕진공원



전주시 전주향교



한옥 속 삶

김진철 아산 외암민속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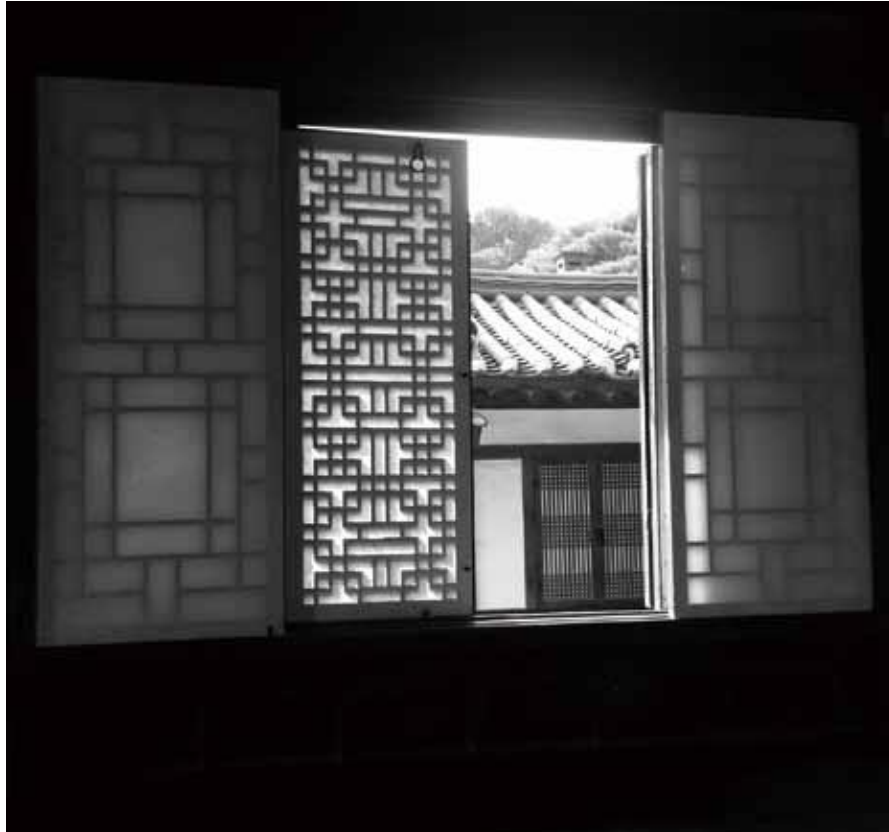




고택의 봄

홍성웅 충남 서산시 운산면 유기방 고택





한옥의 창

이현정 낙선재





한옥의숨

이데레사 성균관

창덕궁

창덕궁





봉은사의 봄

김정화 봉은사



궐적

최태희 서울 종로 북촌 한옥마을



해질녘의 사찰

권치영 송광사



도동서원의 여름

정백호 대구시 도동서원





백양사와 쌍계루의 가을과 겨울

백양사 김점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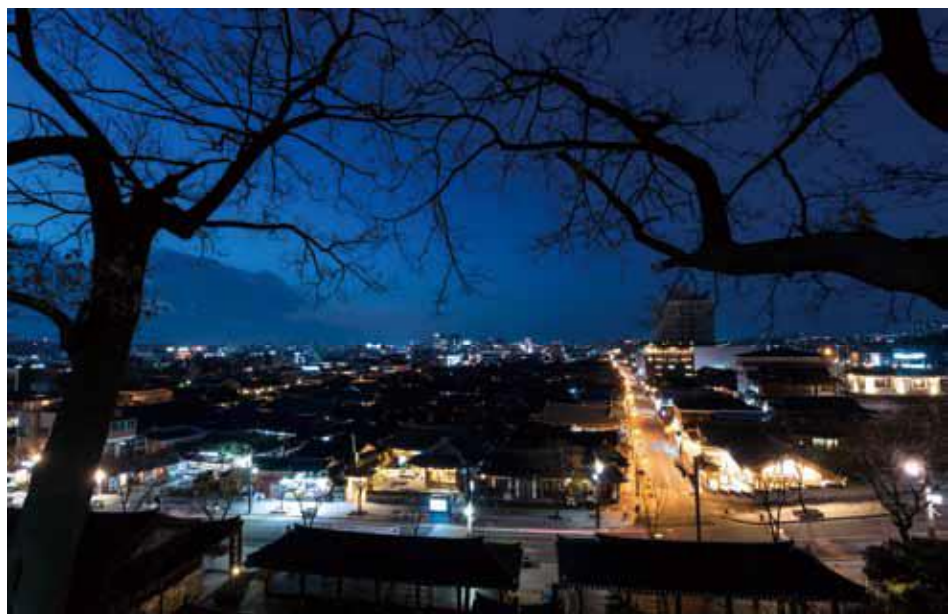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통과 현대의 공존

최근우 광화문

남산



전주한옥마을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8 Korea Hanok Competition

사진부문

청소년







한옥의 응장함

이도연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눈 내린 북촌한옥마을

박은기 서울 북촌한옥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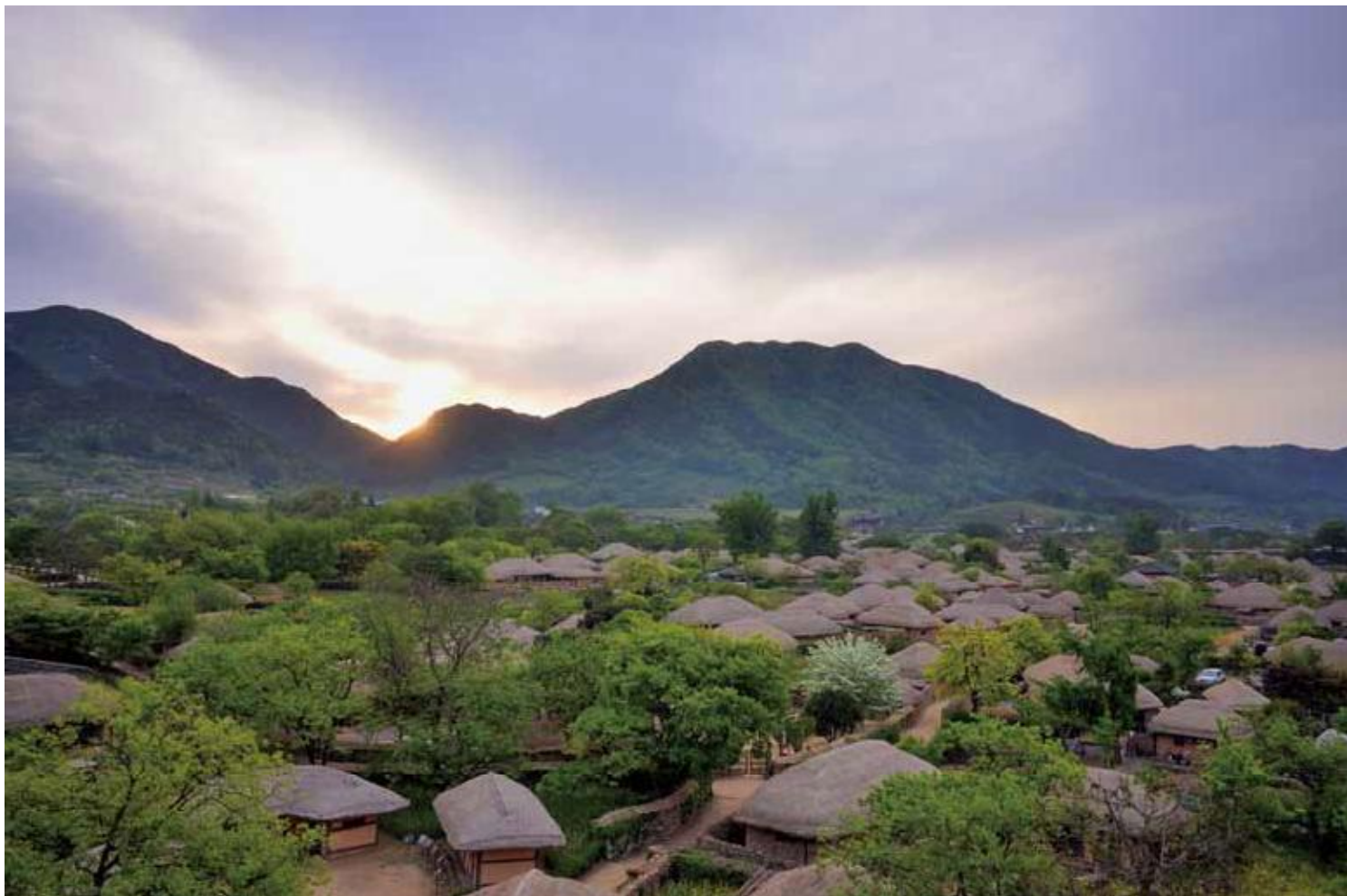


밤의 기다림

정민기 경북궁

오손도손 초가집

김정원 순천낙안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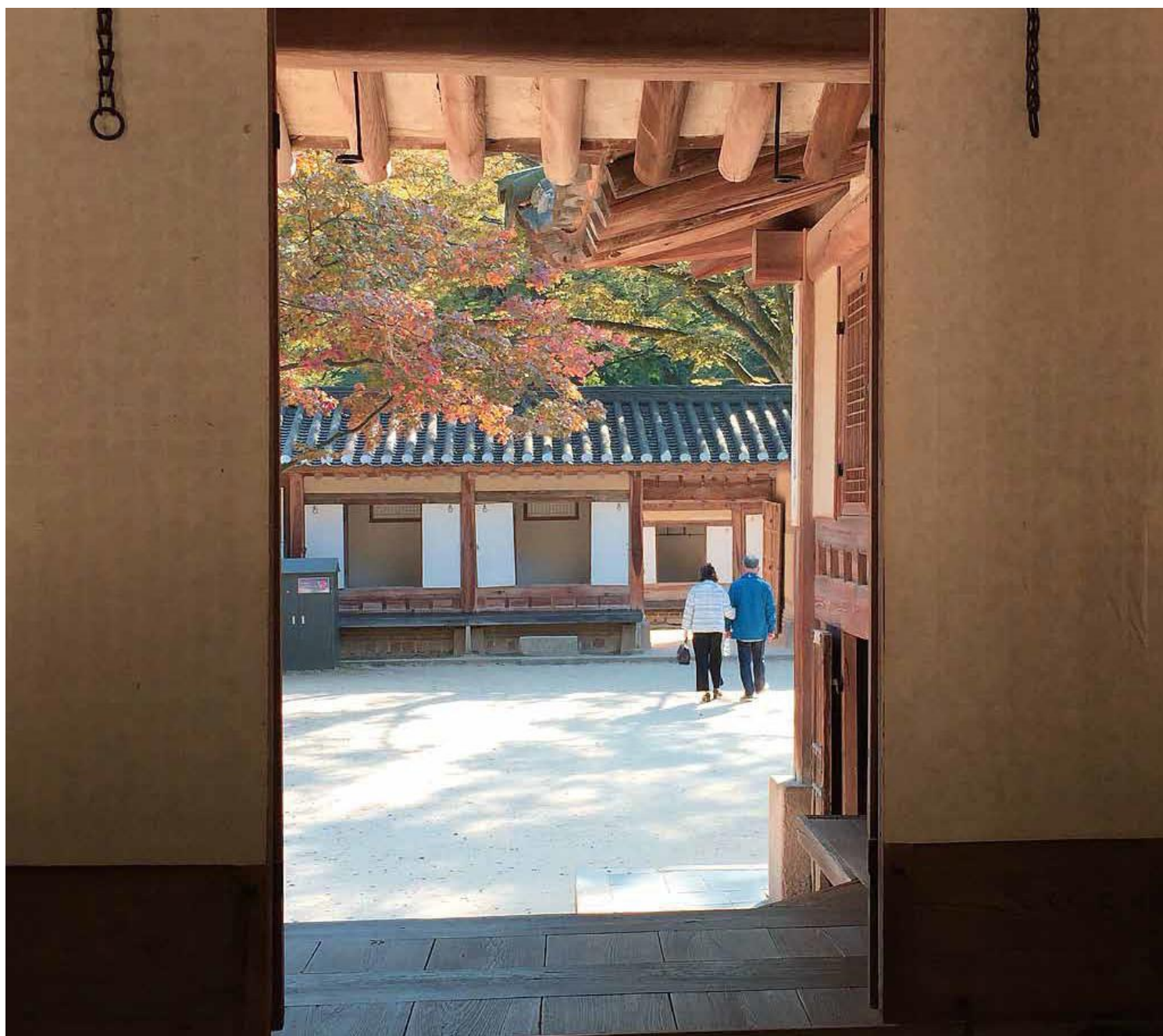




걷고싶은기나긴길

박승윤 경주 월정교

정겨운한옥
최일라 창덕궁





겹겹이

신다운 강릉 선교장

한옥과 한옥 사이로

유하늘 전주 한옥마을





한옥, 인간과 자연의 공존

최유미 화성행궁

봄으로의 입장

배혜주 창경궁





五色丹青

신현지 경복궁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8 Korea Hanok Competition

계획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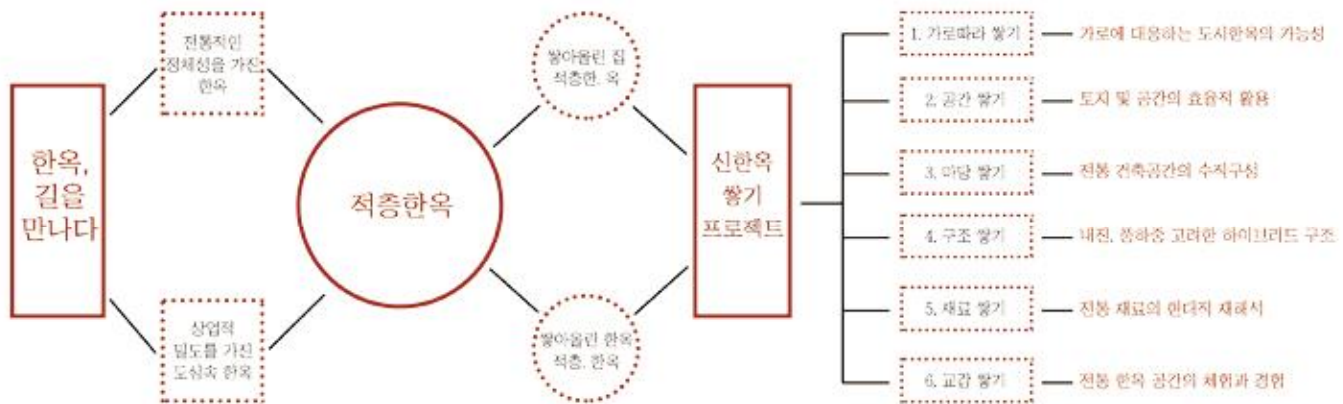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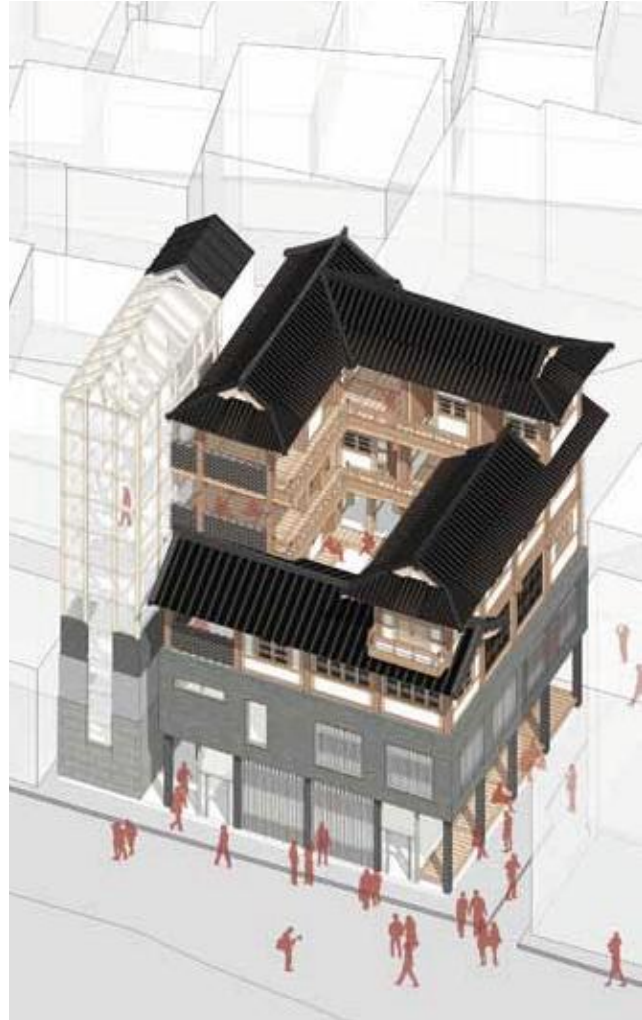
대상 적층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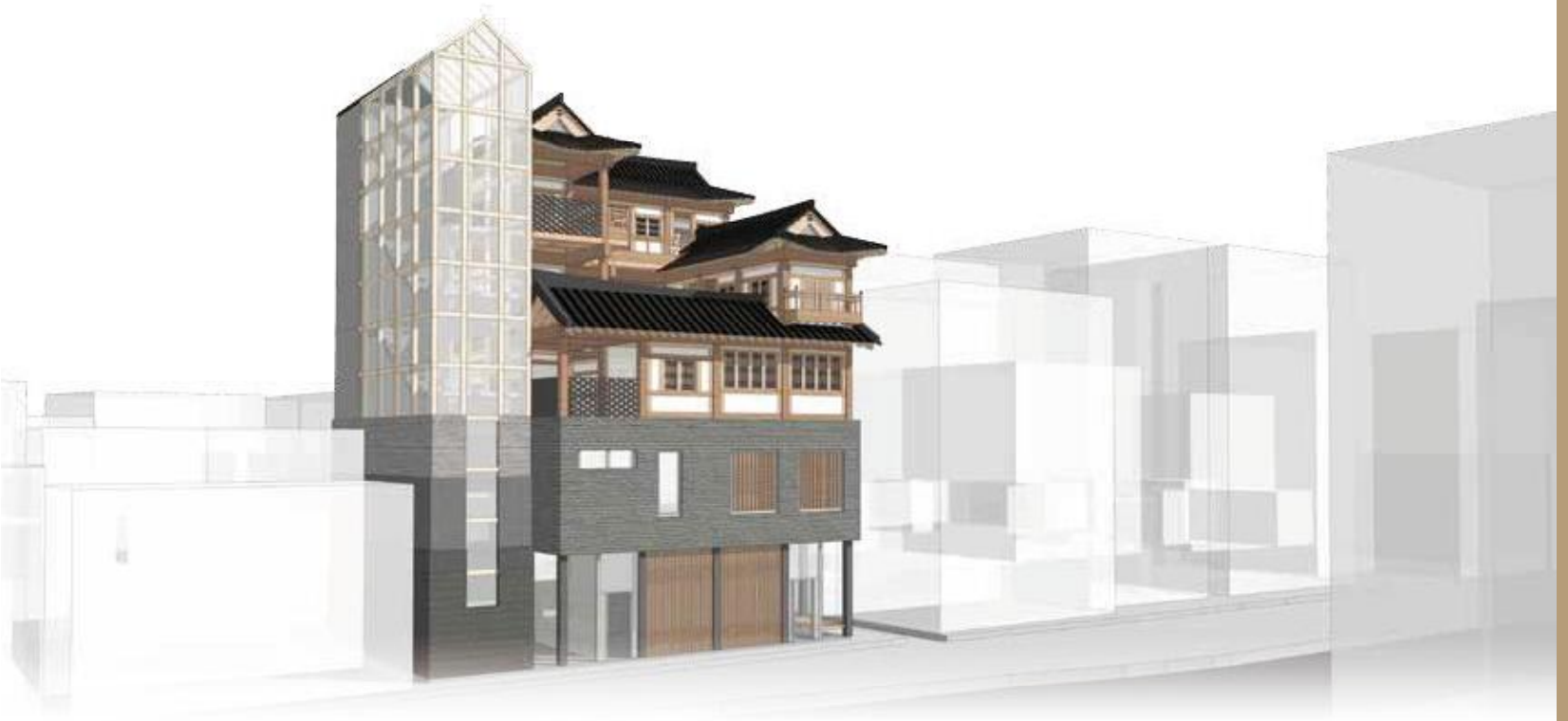
우종성 · 명민수 · 고유진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본 프로젝트에서는 '한옥, 길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전통적인 정체성을 가진 한옥과 상업적인 밀도를 필요로 하는 길에 면한 대지에 지어지는 도심 속 한옥을 [적층한.옥]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계획으로 풀고자 한다.

쌓아올린 집이라는 [적층한.옥]과 쌓아올린 한옥이라는 [적층.한옥]은 한옥의 정체성과 공간감을 간직한 '신 한옥 쌓기 프로젝트'라는 뜻을 가진다. 본래 한옥의 공간 구성 방법은 수평적인 개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반면 도심 속 부지는 대지 특성상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요구하는데, 이에 가로에 면한 부지에 지어지는 도시한옥은 필연적으로 수직적인 공간 구성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또한 수직적인 활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적층한.옥]에서는 쌓기 즉, 적층이라는 개념을 가로, 공간, 마당, 구조, 재료, 교감 등 6가지 요소로 세분화하여 새로운 한옥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1. 가로따라 쌓기

가로에 대응하는 도시한옥의 가능성



2. 공간 쌓기

토지 및 공간의 효율성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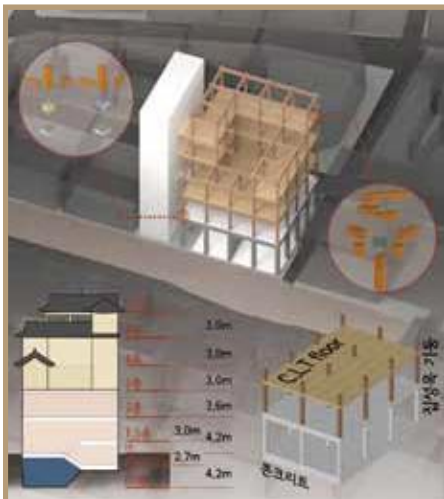
3. 마당 쌓기

전통건축공간의 수직 구성



4. 구조 쌓기

내진, 풍하중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구조



5. 재료 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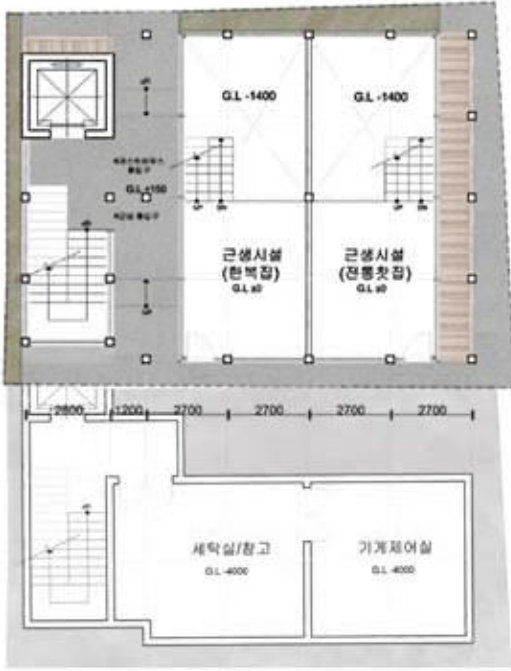
전통 재료의 현대적 재해석



6. 교감 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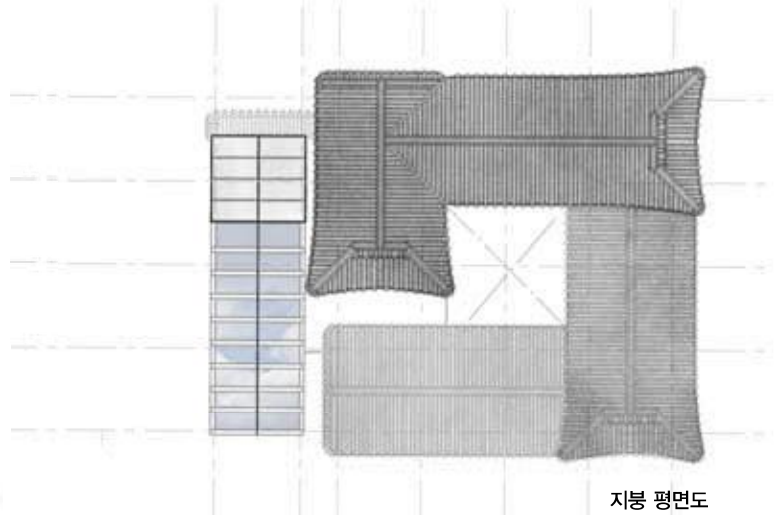
전통 한옥 공간의 체험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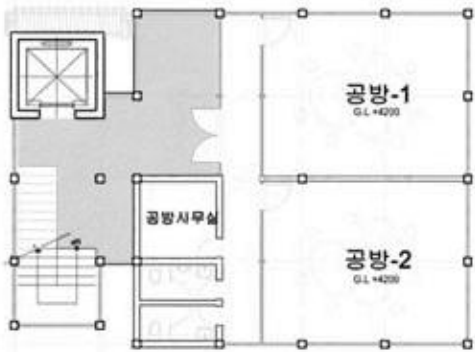


1층 & B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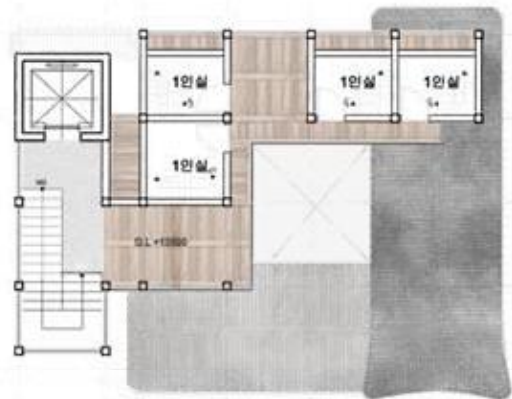
1층은 전통찻집과 전통용품점을, 2층은 전통공방으로 구성하여 익선 지구 단위계획상 권장 용도를 충족, 20%의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기존 60% 건폐율에서 최대 80% 제한 건폐율 중 74% 건폐율 채택. 3, 4, 5층은 외국인 왕래가 빈번한 대지 특성을 고려하여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구성. 지하층은 기계전기실과 한옥 게스트하우스 지원시설인 세탁실 및 창고 조성. 지하층의 나머지 1/2는 스킵 형태로 1층 전통찻집과 전통용품점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함.
 각층 층고 계획은 지하 1층과 1층을 4.2미터로 구성, 1층의 경우 스킵 형태로 각각 3미터, 2.7미터의 중층으로 설계, 2층은 3.6미터, 3, 4, 5층은 3미터의 층고로 계획



지붕 평면도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We路 특별상 위로-우리의 길

이우성 · 최준 · 안지환 동양미래대학교

남대문시장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필연성으로 인해 조악한 외래 건물로 급변하였지만 현재의 건물과 상업 프로그램은 노후화되어 이곳을 찾는 발걸음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옥으로 가득했던 이곳은 더 이상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현대와 전통을 버무린 새로운 방법으로 시대와 함께 걸어온 한옥의 모습을 제안하여 우리의 것을 되살려, 시대와 사람을 품고자 한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일반 50-43, 44
대지면적	133.80㎡
건축면적	99.72㎡
연면적	283.93㎡
건폐율	74.53%
용적률	212.2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층수	3층

과거를 되새기다



우리 대한민국은 상처 입은 역사적 과도기가 존재하였고 우리의 한옥도 이런 과도기를 통해 급변, 소외되어 어느 순간에 멈춰있다.

남대문시장을 되새기다



남대문시장을 살펴보다



남대문시장과 연을 맺다

1. 재래시장에서의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2. 최대한 많은 도로와 접하는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길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을 비롯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로는 재래시장 공간 구성의 주 요소 가로에 상품을 진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로의 흐름을 점포 내부로 끌어들이는 재래시장

가로를 살펴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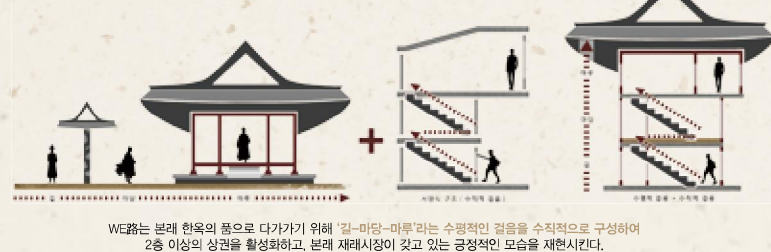


1층 중심의 상업시설
2층 이상의 상권의 비활성화 - 수직동선이 건물 내부로 숨어 있음

We路를 소개하다



We路가 말하는 개념 - 걸음



형태 생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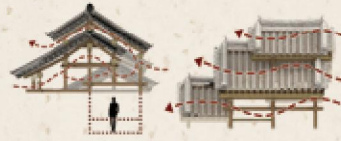


활성화 방안





한옥을 재구성하다



지붕
공간의 위계에 반응한 새로운 지붕 높이차로 인한 새로운 한옥의 공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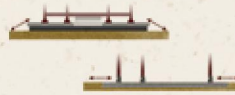
누마루
목구조의 한계에서 탈피 일체화된 구조를 사용하여 공간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위계와 처마 공간 생성



마당
내부의 재료를 외부에서 이입 공간감을 증강시키고 이로써 상인과 시민의 활발한 소통을 유도



계단
일체화된 구조로 계획 칸 안에서 벗어나 도로변에 면한 계단은 수직 방향으로 확장된 외부 도로의 연장이며, 건물과 가로의 연결하는 수직 동선이 될



기단
기단을 기초화하여 가로와 매장 간의 단차를 지양하고 건물과 가로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함



난간
수직 동선과 전이공간을 이어주는 동선의 난간들도 층별로 재료와 구성, 모습을 다르게 하여 다른 공간감을 연출



우물반자
재료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 시각적, 공간적 개방감을 부여



구조
보의 압축력을 통한 부재의 단순화 적용의 편리성과 시공의 효율성을 높임



분합문
개폐방식이 단순로운 기존의 분합문을 기존 재래시장의 어닝, 환기, 차양, 출입구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재해석



초석
초석의 높이를 높게함 1층에서의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적용에 용이하도록 함

위로 올라가다



1층 평면도

(Scale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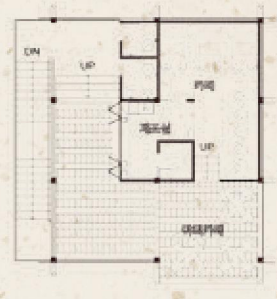
1층 모든상권이 분립분으로 가로와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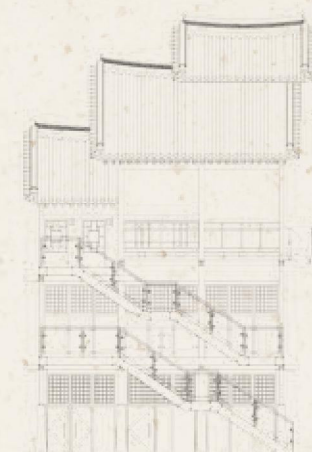
2,3층 상권 모두 전이공간과 닿아있어 색다른 공간감을 선사하고, 진입물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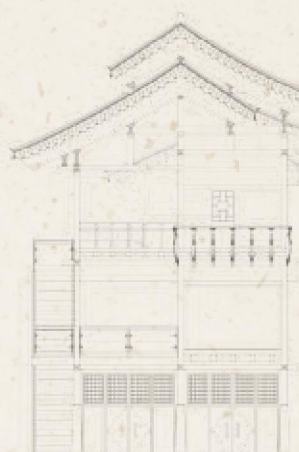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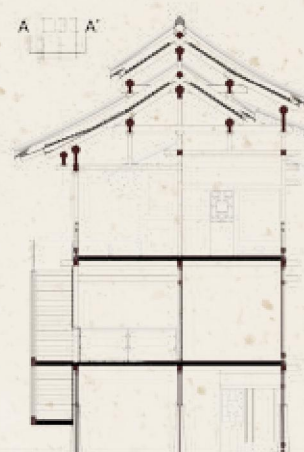
(Scale 1/100)



남측면도



A - A' 단면도



금상 첩첩명와(疊疊明瓦)

박수경 · 홍규표 · 이민영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프롤로그



현대 도시는 도시재생을 거치며 좁은 대지에 수직적으로 쌓아 올려진, 건물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상실한 획일화된 모습을 보인다. 도시 가로에 가장 밀접한 건축인 상업시설을 한옥적 구성요소를 이용해 재해석함으로써 앞으로 한옥이 도시 속에서 현대 건물과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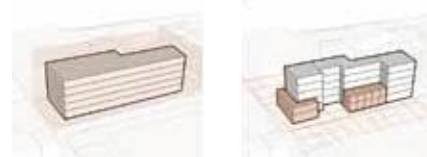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59-1
지역지구	중심사업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1,598.7㎡
건폐율	60%(완화조건 충족시 80%)
용적률	400-1500%

컨셉



단순히 사고팔고의 기능을 하는 상업공간이 아닌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업공간을 제시한다. 일차원적으로 '걷는다'는 행위에서 벗어나, 행위를 연속할 수 있는 건축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감정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한다.

매스프로세스



하나. 장방형 대지에 용적률에 맞춘 최대 볼륨 생성

둘. 주변 상가 건물 스케일에 맞추어 그리드 형성

대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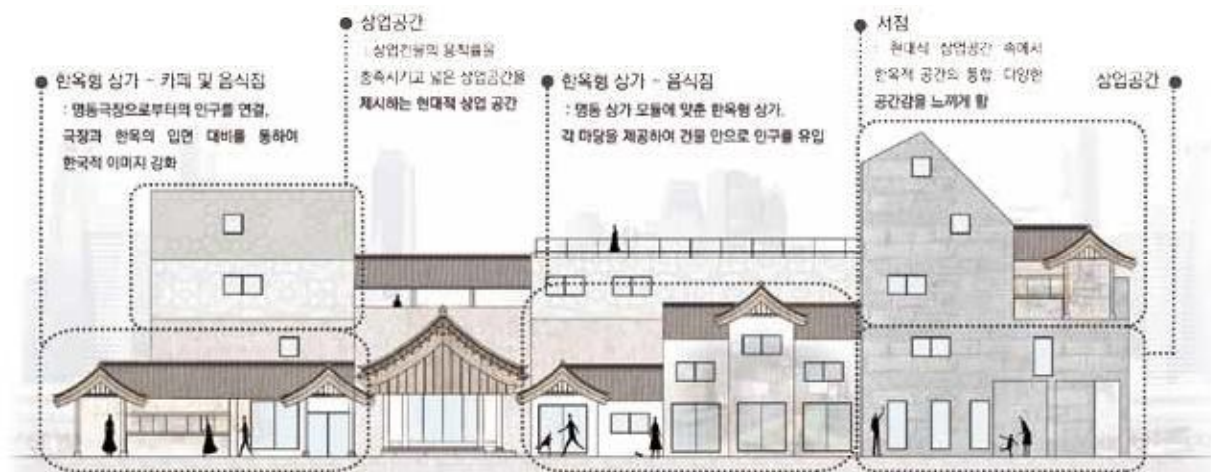


셋. 스카이라인에 맞춘 높이 설정

넷. 한옥적 요소와의 결합

밝은 고을(明洞)이라는 뜻을 가진 서울의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명동은, 1970년대부터 서울의 변화가로 도시재개발을 거치며 첩첩문화관광거리로 조성되었다. 그 후 다양한 요구를 가진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상업 거리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업성이 강한 소비거리로 변모하였고, 무분별한 고층 고밀중심의 건축물 건설로 도시 경관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과도기속에서, 앞으로 명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중요한 시기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첩첩명와'를 통해 명동 상가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상가의 모습으로 가로경관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명동이라는 입지적 조건을 이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더한 새로운 가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프로그램





공간구성

동축 한옥상가
영동국경으로부터의 인구를 한옥상가로 연결하며 건물 안으로의 진입을 유도한다.

옥상정원과 한옥의 회랑
옥상정원 및 두 층의 대사를 연결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한옥상가
현대적 대사와 결합하여 한옥적 공간감을 다 강조한다.

진입마당
사람들의 동선을 잘-일함-이점으로 연결하여 건물로 인구를 유입한다.

가로변 저층부 한옥상가
기존의 상가와 앞으로 발전할 상가의 스케일이 맞추어 모듈 제시 가로 공간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상가의 모듈 적용

현대적 상가
전통적 공간을 의무가 아닌 내부로 인기 밀리치 공간을 통하여 보정함을 받아들이고 전통 상가와 대비하여 현대적 공간 제시

수공간
한옥 상가와 현대 상가를 연결해주는 수공간 전통적 이미지를 더해 다양한 공간감을 제시한다.

뜰문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공존함을 연결해주는 뜰문, 뜰문대어를 이용하여 적용한다.

차일
옥상정원에서 그늘과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상업공간을 어외로 연결시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게 한다.

평면도

1층 평면도
1. 현대형 상가상점 2. 한옥형 상가(음식점) 3. 수공간 4. 진입마당

2층 평면도
1. 현대형 상가상점 2. 한옥형 상가(음식점)

3층 평면도
1. 현대형 상가상점 2. 한옥형 상가(음식점) 3. 옥상정원, 화장 4. 사무실

4층 평면도
1. 현대형 상가상점 2. 옥상정원

5층 평면도
1. 현대형 상가상점

배치도

저층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차하고 진입하는 곳인 만큼, 가로변을 따라 한옥형 상가를 배치하였다. 한옥형 상가 뒷부분에는 현대적 대사를 배치하여 한옥상가와 대비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가로변에 접하는 정방형의 대지 형상에 따라 다양한 출입구를 두었는데, 주 상가에는 진입을 위한 진입마당을, 가로로 따라 놓여진 상가에는 각 상가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를 두어 용도별 진입을 유도하였다. 또한 다양한 한옥 마루의 모습으로 출입구의 입구를 함과 동시에 한국적 이미지를 더하였다.



단면도

입면도



은상 ZERO - 5IVE

곽미정 · 박성진 · 김재인 중앙대학교

대지 분석



사이트 현황

오류 시장: 50년을 이어 온 전통시장으로서 주변의 디세대주택과 전면의 상업 지역을 면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오류동역이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고 오류동역의 행복주택지구와 함께 많은 거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재래시장이 다. 현재 재개발과 전통시장 보존의 문제로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쾌적한 공간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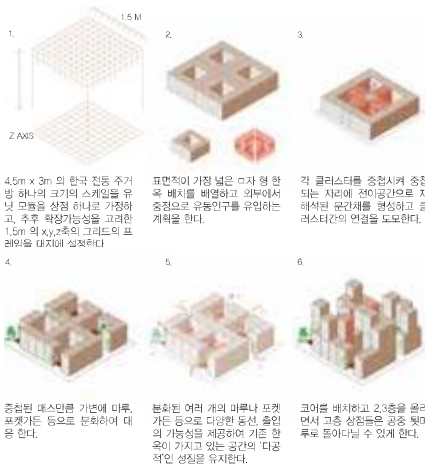
필지: 시장 내의 여러 필지 중 전면 대 도로에 면하는 가장 큰 필지와 그 후면의 4m도로를 끼고 위치한 필지를 선택하였다. 이 두 필지를 합침하여 공동 개발 한다.

한옥의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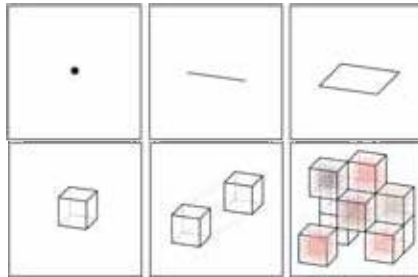


현유는 상대적 '공공성의 공간'과 '개인성의 공간'의 커들이 얽혀있는 공간들의 집합체이다. 공간들이 세밀하게 분절되고 겹쳐져 있으며 그 공간 속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공간 체험을 접하게 해준다. 특히 마루나 중정이라는 '진이 공간'이 가지는 가치는 한국적인 공간으로서 의미가 높다. 우리는 이런 현유가 가지는 '공간'에 집중한다.

DESIGN PROCESS



ZERO TO FIVE DIMENSION LEVEL OF SP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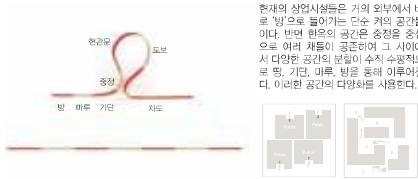


0차원에서 5차원의 공간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0차원은 공간 속의 '점'을
- 1차원은 점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선을
- 2차원은 선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면을
- 3차원은 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입체적 형태 - 공간을
- 4차원은 시간과 공간이 맞물려 시공간의 관계를
- 5차원은 시공간에 사람을 더해 이들이 맺는 '삶'을 뜻한다.

이와 같이, 거대한 시공간의 모듈을 경량조립식 철골구조로 세워 추후 변화 가능한 사람들의 삶을 포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상업시설 뿐 아니라 도심 속 사람들의 삶을 담는 숨쉬는 한옥 공간을 구현한다.

CONCEPT - 커 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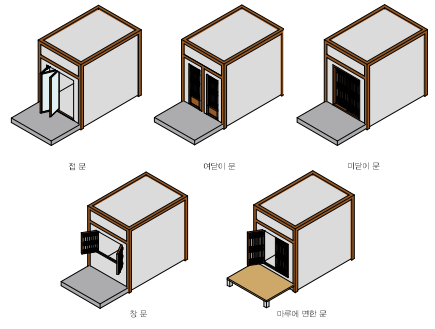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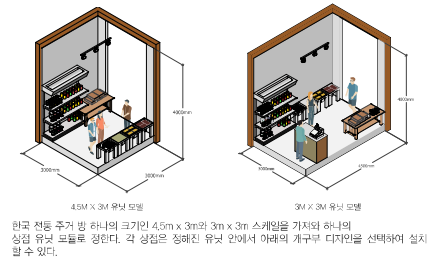
기존 존재하던 한옥의 '커'를 접는다. 이를 통해 많은 공간과 얻을 수 있는 전이공간인 중정(마루)를 외부 가변으로 빼내어 내부 중정으로 외부 가변에서 바로 상업시설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커의 단계를 줄이는 방법을 이용해 많은 상점들은 가변, 사람과 시각적, 물리적, 직간접적으로 만남을 최대화 하고 잠재적 소비자 수를 늘린다.

중정



대지면적	2,950㎡
연면적	3,582㎡
지상 층수	3층
용적률	121%
건폐율	72%

UNIT MO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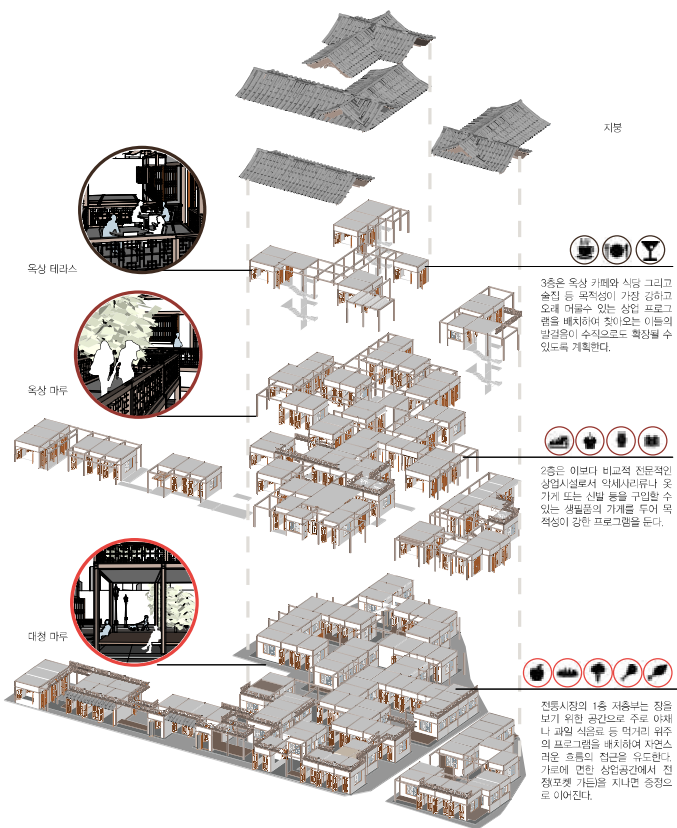


ELEVATION SCALE 1:200





ISOMETRIC DIS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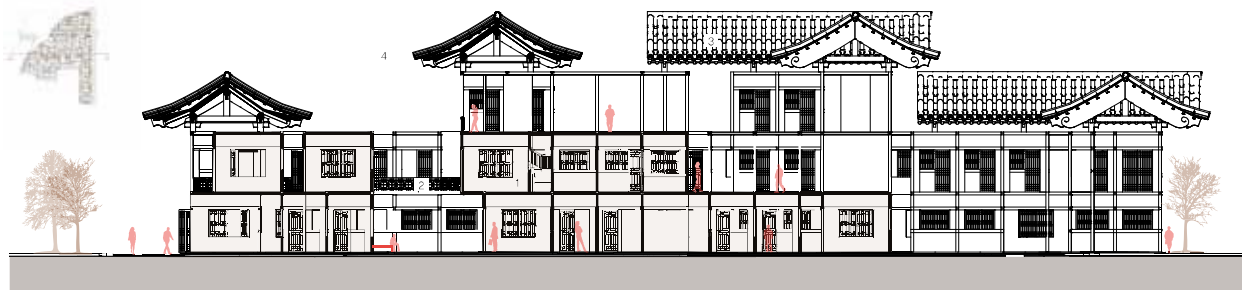


1F PLAN SCALE 1:300



SECTION SCALE 1:200

KEY MAP





PROCESS



SCALE : 1/200

1. 상설공간
2. 계선대
3. 통성
4. 침고
5. 곡상마당

SECTION SCALE : 1/150



동상 2.0 한옥리노베이션: 진화한 현대한옥형 상업시설

심윤재 · 이승훈 중부대학교



현대 시대가 요구하는 효율, 기능, 경제, 편리성에 따른 기존 상가건물에 한옥이 지니는 공간 및 입면적 요소들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진화된 새로운 한옥형 상업시설을 계획한다. → '한옥'을 입은 현대 상업시설

상세투시도



'한옥'을 입다



단면도 scale : 1/150



입면도 scale : 1/150





기와지붕의 변신과 서까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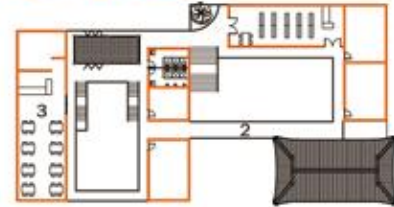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scale :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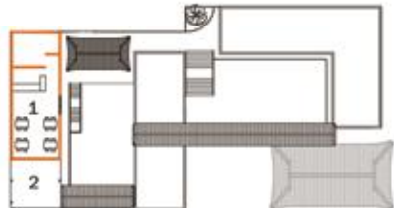
1. 키오스크 2. 경명마당 3. 횃머루마당 4. 상가

2층 평면도 scale : 1/250



1. 한옥센터 2. 건너다리 3.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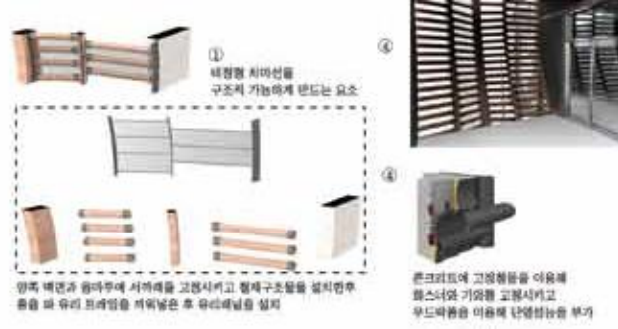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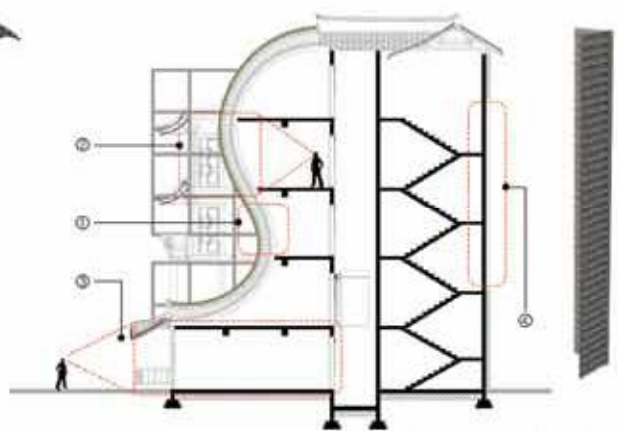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scale : 1/250



1. 한옥센터 2. 상가



구조해결 및 단면부시도



③ 한옥의 공포구조를 표현화 시켰으며 한쪽 밖에 있는 처마를 고정시키고 기둥의 하중을 버텨주기 위해 편고대를 시카에 덮어 워나 대두어 하중을 분산시켰다.

한옥의 고층화를 위해 짜맞추기 기법 중 워나인 시카 받음을 이용해 구조적 하중을 받으며 기둥과 기둥사이에 노력이 무대를 더해 기둥거리의 연결을 요했다.

'올레브'의 역할은 한옥의 대두인 '우물대두'를 대체 했으며 짜맞추기 기법을 이용해 절대 없이도 사람의 무게를 견딜수 있도록 계획했다.



입면도



동상 응해야

서유미 · 한하린 · 장정화 동양미래대학교

PROLOGUE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는 다양한 미래형은 문화적인 공간을 접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에 건축을 위치시키는 내러티브의 상상성함에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건축을 포함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느끼도록 하였다. 현대 건축 기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건축 디자인, 내부, 외부, 수직적 공간 구성하였다. 기존 건축에서 불가능했던 건물 내부로 물류 또는 상업과 여가 공간의 다목적 공간이 구현되었다. 공간 하나씩은 공간과 위주는 공간을 내보내고 있다. 건물 내부의 수직 통로와 외부 계단을 통해 연면적 부연 장치를 창출하여 지나가는 공간, 여가와 여주층, 보고, 체험, 생활하며 여주는 공간을 상상하였다. 또한 건축 전통의 미를 표현하여 현대적이고 건축을 형성함으로써 서구적으로 바꾸는 길까지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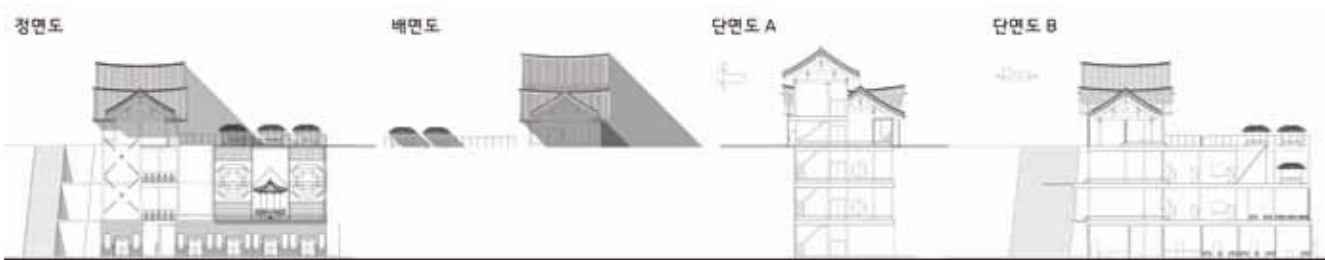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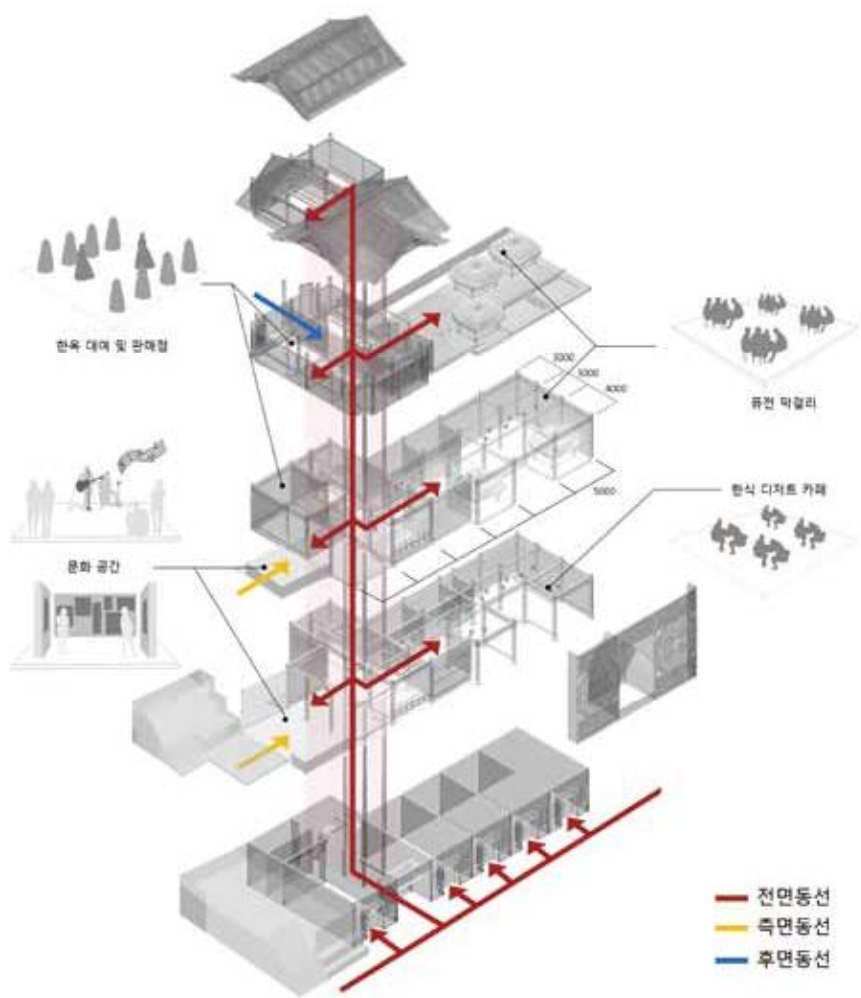


DIAGRAM



화할
雍
함
계
偕
이
꼴
惹

응해야



입선 한옥, 길을 향해 열리다.

김규현 · 김수용 명지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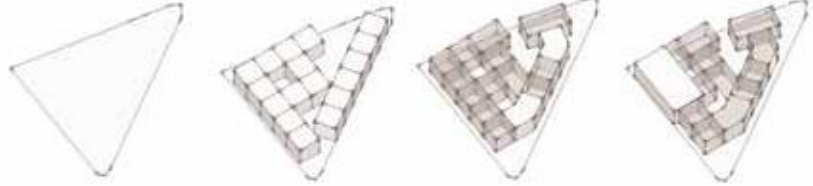
현황분석

Site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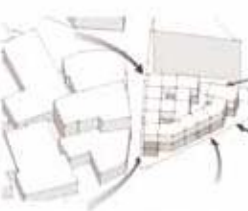
2009년 2월 498m이르는 기존의 모습을 원형대로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의 도로 300m 구간을 지하화시키고, 터널 상부를 녹지로 조성하여 창덕궁과 중요성을 이으며, 기존의 담장과 복선문등을 복원하는 계획이다. 지하보도가 완공되었으나 지하보도가 경사져있는데다가 어둡고 길어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있다. 이에 그길의 끝에 고즈넉한 일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Design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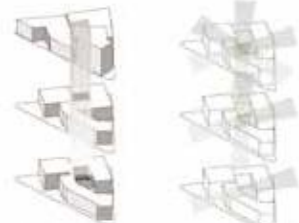


도심지의 삼각형 대지 한옥 간 구조 상 배치의 문제 둔각 이음을 통한 해결 RC구조 사용으로 공간 효율 증가



기존의 한옥이 가지는 다소 폐쇄적인 언어는 도시의 상업의 용도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한 면이 있다. 때문에, 품당도어, 정자 소원도 등을 통해 가로로 향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가로를 향한 접근성과 개방성



기존 건물의 마당을 이용 다양한 소통 가능성

Structure Concept



기존의 목구조 방식은 삼각형의 대지에 적용하기엔 공간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다. 이에 이면 가로 부분의 구조를 RC 구조를 하고 이에 목구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공간의 합리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면 가로에서의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하였다.



입면의 연속성
서순리길의 기존의 입면은 조적식의 입면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에 관한 현대식의 연계성 부여를 하기보다 화방벽 입면을 통한 연속성을 부여했다

투명하게 열린 입면
SITE 전면부에는 서순리길이라는 상징가도가 위치해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투명한 입면을 배치해 줌으로써 한옥이 갖는 폐쇄적인 단점을 극복하였다.

공중의 율리
한옥의 장점을 극대화 시켰다. 한옥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공간이 되기도 마루에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점을 이용해 대로변에 향달은 곳에 공공가로로 향해 열려있는 장자를 마련해주었다.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서순라길 157-4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용도	지하 사무실, 지상 상업시설
대지면적	180㎡
건축면적	120㎡

이 설계안은 우리의 전통적인 한옥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 속 상업 공공가로에 세우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한옥은 주거적인 형태에서 시작되어 다소 폐쇄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상업적인 용도로 한옥을 쓰기 위해 공공가로를 향해 적극적으로 열어주었다.

우선 한옥의 기존요소 중 공공가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부각시켜주었다. 한옥의 장점은 건축물 자체의 요소가 공중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소를 살려서 모두를 위한 정자를 삼각형의 대지에서 가장 통행이 많은 곳에 만들어주었다. 그 정자는 길의 쉼터이자 우리의 한옥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한옥 입면의 요소는 다소 폐쇄적이기에 폴딩도어 등 투명한 요소들을 배치하여 주었다.

현대도심에서 상업지역은 뾰뾰한 밀도를 가지고 있다. 즉 필지는 그리 너그럽지 않아 삼각형의 땅일 수도 있고, 소규모 상가밀집지역에서는 아주 작은 필지만이 주어질 때가 많다. 하지만 한옥은 칸의 개념이기 때문에 좁은 예각의 필지에는 설계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삼각형의 작은 땅에 소규모상가를 위한 한옥은 어떠한 형태이어야 할까. 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는 직각의 칸을 둔각으로 이어주었고 상가를 위한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주었다.

결국 담장을 허문 한옥은 현대 도심 속 상업지역에 맞는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녹아 들것이다. 현대 도심의 상업시설은 대부분이 연도형 상가이다. 이와 걸맞게 우리네 한옥을 도로와 맞닿게 하면 공중에게 한옥 특유의 너그러움을 소규모 상업시설으로써 제공 할 수 있다.

입선 온; 모든 것이 어우르다

박현창 · 유화연 · 김하은 · 강민서 원광대학교



개념



근대 이전의 건축은 채와 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향으로 이웃과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엔 필지가 작아짐에 따라 바닥은 채의 가운데로 몰리게 되고, 대청마루는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또 벽이 담장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집에 접하는 벽은 소량의 단열을 이루게 되었다.



전통 건축의 기본 개념인 안은 평균 30cm의 수직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현대인의 삶을 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30cm의 간격을 사용하여 안쪽 보들의 간격을 해결한다. 입면에 벽들의 사용 대신 부분적으로 유리를 사용하고, 벽면의 기와 표현으로 절충시 건축, 현대 건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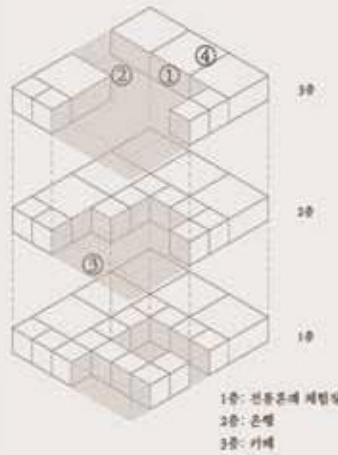
대리는 전통 건축어를 포함과 남부시장이 인하는 공간은 시가지의 107-9번지의 106-2번지를 포함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고 '현대 건축의 기운'과 '남자의 활동'을 향한 방향을 제시한다. 오늘날 건축을 현대화 하려는 시도가 없다. 하지만 전통성에 대한 함의으로 전통건축을 잊으며 의형식을 띄고 있다. 만약 근대 건축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변화되어 왔다면 어떨을까?



구조적 해결



공간 프로그램



단면도 scale 1:200



입면도 scale 1:200





온; 모든 것이 어우르다

평면도



1층 평면도
scale 1:300



2층 평면도
scale 1:300



3층 평면도
scale 1:300

오늘날 한옥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다. 하지만 전통성에 대한 강박으로 전통한옥을 찾으며 퇴행성을 띄고 있다. 만약 근대 한옥이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변화되어져 왔다면 어땠을까? 근대 한옥 상가는 목조 골격에 벽돌로 벽을 쌓고 한식 기와를 얹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과연 벽을 벽돌로 쌓는 부분이 외형적으로는 한옥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기존의 재료를 대체할 이상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의 한옥은 필지가 작아짐에 따라 채와 채의 개념이 아닌 벽이 담장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길에 접하는 벽은 소통의 단절을 이루게 되었고 마당은 채의 가운데로 들어가고 대청마루는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이에 본 계획에서는 콘크리트로 둘러 싸여있는 전주 한옥마을을 초입과 남부시장이 만나는 풍남문 사거리의 187-9필지와 186-2필지를 합필하여 계획대지로 선정하고 '현대 한옥의 기준'과 '상가의 활용'을 향한 방향을 제시한다. 전통 한옥의 기본 개념인 칸은 평균 8척의 주칸거리를 가지고 있으나, 현대인의 삶을 담아내기에는 협소하다. 따라서 20척의 주칸거리를 사용하여 한옥 기본 모듈의 한계를 해결한다. 공학 목재를 사용한 중목구조와 경골목구조로 한옥의 단점을 보강하여 현대에 맞는 신한옥을 만든다. 입면에 벽돌의 사용 대신 부분적으로 유리의 사용과 벽면의 기와 표현으로 절충식 한옥, 현대 한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 상가는 담장이 없는 상가와 담장과 마당이 있는 상가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채우기 위한 답답한 건물의 공간은 지양하며 수평적인 공유공간으로써의 회랑을 1층 전통헌례 체험장을 두어 요즘 젊은이들의 전통에 대한 무관심함을 돌린다. 1층과 2층 은행, 2층과 3층 카페에 중정을 통한 수직적인 공유공간을 둬으로써 수평적인 공유공간과 수직적인 공유공간의 소통을 유도한다. 이렇게 공유공간의 소통을 유도하고 한옥과 같은 전통성을 나타냄으로써 현대화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끈다.

입선 늘솔길: 늘 솔바람이 부는 길

서민우 · 김동현 · 이소현 · 김경영 동서대학교 건축설계학과

SITE PLAN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2가 30-11
대지면적	438㎡
연면적	490㎡
건폐율	64.84%
용적률	111.87%
1층 면적	206㎡
2층 면적	284㎡
구조	목구조, 콘크리트
규모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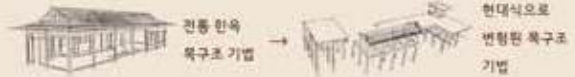
건물 용도



주차장



목구조 기법



CONCEPT



기존의 한옥지붕에서 현대식으로 간소화 된 지붕으로 해결하였으며, 3곳의 마당을 대지 단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간들을 형성하였다.

관광지



대지 현황



산책로



INTERNAL VIEW





2RD FLOOR PLAN
SCALE 1/400



1ST FLOOR PLAN
SCALE 1/400



우리나라 건축물 중 한옥은 한국 전통의 미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건축물이다. 한옥은 한국의 오랜 전통이 담겨있는 집, 그 자체이며 근대에 들어서 주택이 서양식으로 지은 양옥으로 바뀌면서 수많은 건축 발전을 이루었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건축, 한옥에 대한 발전은 거의 되지 않았다 해도 무방하다.

건축의 발전에 더불어 서서히 진화하는 한옥의 토대가 되어주고자 하여 현대적인 구조와 재료를 조화롭게 사용하였다. 한옥의 전통 지붕인 기와지붕과 현대식 건축물의 지붕인 평지붕을 사용하여 다소 낮선 느낌이 날 수 있지만 내부는 한옥의 구조인 주춧돌과 목재기둥을 사용하였고 현대 건축물의 재료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대지의 축을 매끄럽게 이용하여 바람길을 형성하였으며 단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마당을 두어 한옥의 전통 구조인 마당을 살렸다. 또한 정문 출입부에 누각을 설치하여 주변의 자연경관을 한쪽의 그림처럼 끌어들이는 만끽하도록 하였다.

대지는 용두산 공원 산책로 입구에 위치한다. 남북방향으로 긴 경사대지이다. 북동방향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인 용두산 공원으로 향하는 산책로가 있다. 또한 북쪽방향과 동쪽 방향에는 주차공간이 따로 있어 건물 내에 굳이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현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 등의 유동 인구가 많은 이곳을 대지로 선정하였다.

큰 도로에서 올라와 건물 내부의 산책로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용두산 공원의 산책로로 향하는 동선이 만들어진다. 현대식 건축물들 사이에 있어도 위화감이나 겉도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줄곧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 같은 한옥건축물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한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도 좋지만, 한옥의 부분적 요소를 현대화 시켜 간소화함으로써 과거(전통)와 현재가 어울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들의 조화(Harmony)를 건축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SECTION
SCALE 1/200



입선 일월당(日月堂): 날과 달, 세월을 품다

전미진 · 이수진 · 김민주 · 조한리 동양미래대학교

SITE ANALYSIS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9,9-1 현책방거리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건축면적	165㎡
연면적	223㎡
층수	지상 3층
구조	한식 목구조
용도	상업시설

PROBLEM & 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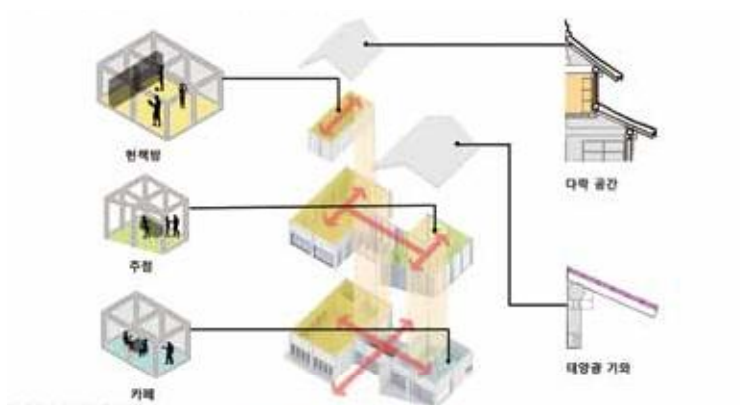
CONCEPT



MASS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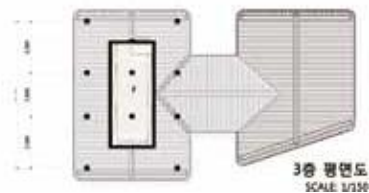


CIRCULATION & SPACE PROGRAM



PROGRAM





과거에 일반적이었던 한옥은 최근 소수의 애호가적 취미에 맞춰 지어지는 시정인데다 현재의 한옥 건축이 전통적인 구법과 형상을 고집하는 사이에 현대적 재해석과 일상적 확립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선정한 부지는 인천 배다리 헌책방 거리 중 삼거리에 위치하는 부지이다. 미흡한 보행환경 및 헌책방 이외의 연계 프로그램 부족으로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어려우며 급격한 도로서장 변화로 인해 헌책방의 수요가 줄어 점포수가 전체적으로 상권이 쇠퇴중인 현황이다.

우리는 전통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대사회와 함께 발전한 한옥의 모습으로 앞서 제시한 부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1. 전통한옥과 유리한옥을 조화시켜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며 부지의 일부를 앞마당을 내줌으로서 행인들의 보행환경 개선 및 발걸음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길과 만나는 한옥 생성
2. 유리한옥은 주 구성요소를 유리로 하여 내부의 빛이 외부로 투과되어 어두운 밤거리를 밝혀 주고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업시설로서도 유리함과 동시에 현대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접목시켜 현대사회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전한 한옥의 모습 표현.
3. 기존의 프로그램인 '헌책방'을 전통한옥 건물에 배치하여 과거를 계승하고 'PUB'과 '카페' 프로그램을 유리한옥에 배치함으로써 낮과 밤 구분 없이 활발히 이용 가능한 상업시설을 형성함과 동시에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헌책방도 방문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
4. 전통한옥은 '헌책방' 프로그램을 대입하여 책 읽는 사유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다락을 설치하여 색다르게 책을 읽으며 몰입할 수 있는 공간 형성.

전통요소로 생성한 하나의 한옥과 현대적 요소로 생성한 유리한옥을 조화시켜 배다리 헌책방 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을 모두 나타냄으로서 발전한 한옥의 모습 또한 나타낼 수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춘 한옥을 더해서 도입 및 설계로 수요가 줄었던 헌책방에 다시 관심과 발걸음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입선 한점 사용설명서

장지민 · 이해원 한양대학교

CONCEPT : 이분법적 해석 되어온 상업공간의 **허중**을 통한 **한옥 처마 곡선의 대개 공간화**



상행의 구분에 의한 단절된 상업공간 / 지중, 공간 되어 놓는 후 공간화 / 평행적(있는) 면이 되어 있는 공간 / 곡선의 꺾을 원형의 처마(한옥)를 처마 곡선의 대개 공간화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4길 11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대지면적	191.43㎡
건축면적	122.154㎡
연면적	582.727㎡
용적률	240.94%
최고높이	14,810m

DESIGN PROCESS : 상업 공간에 한옥의 처마 곡선을 공간적 확장을 통해 **경쟁적 교섭(교)**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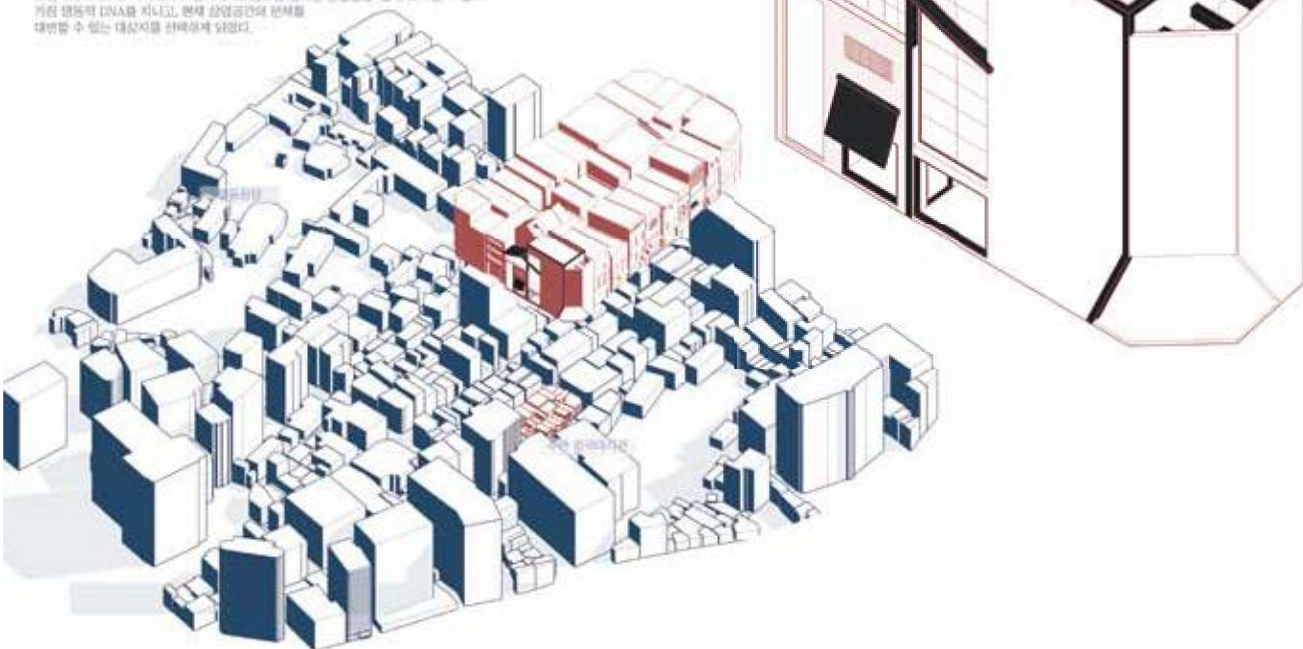
내외부 공간의 **관입**을 통한 자유로운 **전입로 형성** / 기존의 수직적 단절형태에서 **교섭된** **살입**을 통한 층의 **모호화** / 성의 구분이 없는 **공용된** **복합성**을 가지는 **공간**의 **살입**



새로운 재료 : 한옥의 예전 구조재를 재에서 HCL, 통공콘크리트의 대개 구조물 형태의 시공 / (재)가공, 시공의 자유의 공간 / **처마 밑 공간 재해석** : 평면의 상업공간의 확장된 공간의 공간화 / 한옥의 처마 밑 공간과 공간 / **SPACE & PROGRAM** : 평면의 기존 상업공간과 대개 공간으로서의 Roof stair의 MIXED PROGRAM / 기본 상업공간 : 매장, 체험공간 / 이분법적 프로그램의 공간 / **ROOF STAIR** : 이분법적 프로그램이 아닌 공유의 공간을 갖고있는 공간 / (재)가공, 시공의 자유 / **지붕의 간극** : 한옥의 대표적 특징인 지붕의 간극을 통해 대개 시공하는 상업사당에 적용 / 기본 연동 40 정도가 있고 있는 스페이스의 연동 / **[ROOF STAIR 기본 모델]** :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카페이지만 한옥의 특징적인 구조적 자음적으로 프로그램의 적용이 자유롭다

SITE

영동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지켜이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영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영동에는 1970년 이후 개발을 통해 조선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변화할 것 같은 건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기존 영동의 DNA를 지니고, 현재 상업공간의 본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장지를 선택하게 되었다.



한옥 처마 곡선을 통한 긍정적 교섭(點) 상업공간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성의 특성에 따라 구분 되어 온 건축 공간 속에서 생활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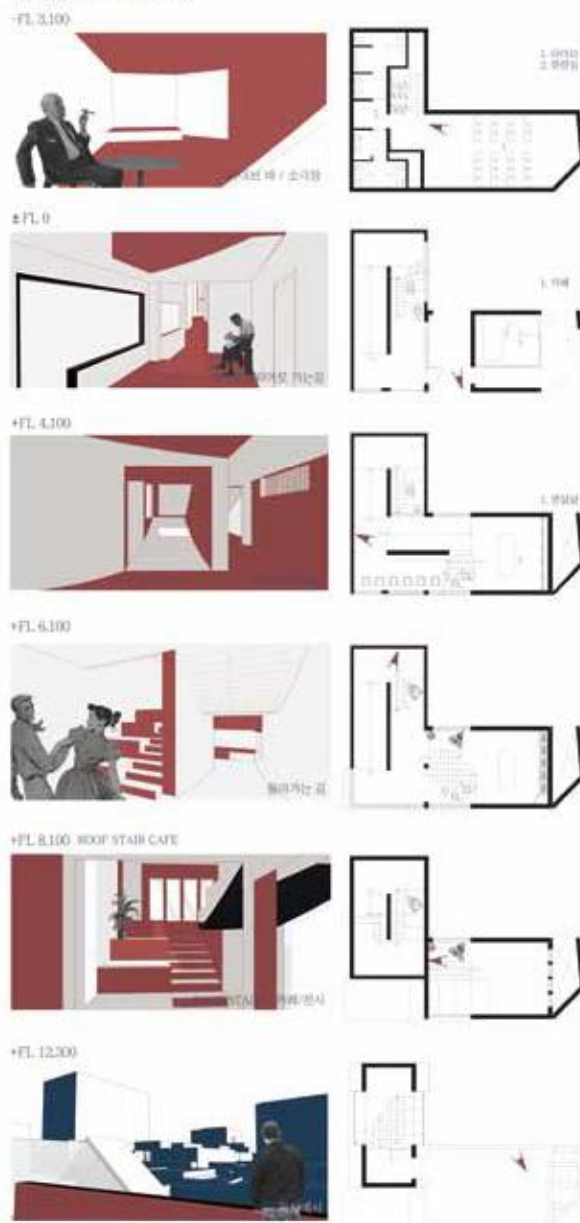
한옥의 공간에서도 남성의 공간 여성의 공간이 존재해 왔으며, 주거 공간에서 상업 공간까지 서로 다른 성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여성용 남성용 구분 지던 것에서 남녀공용, 즉 유니섹스라는 기준이 생김으로 인해 그 구분이 모호해졌다. 이처럼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성을 기준으로 이분법적 공간이 아닌, 처마 선의 공간적 확장을 통하여 긍정적 교섭을 이루어 누구나 편하게 접근 가능한 상업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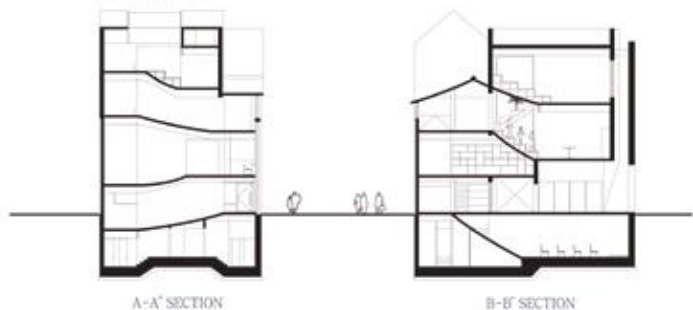
SITE PLAN



FLOOR PLAN



SECTION



ELEVATION



입선 “티움” GALLERY

전태림 명지대학교 전통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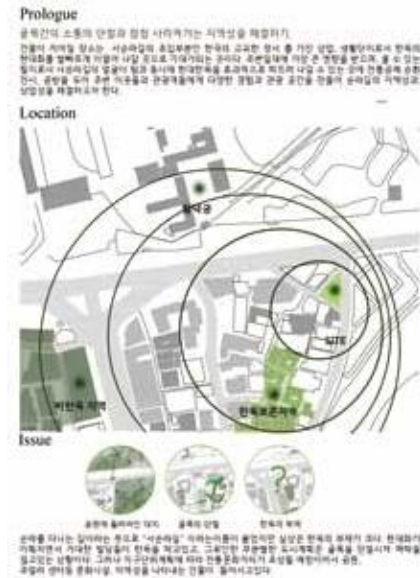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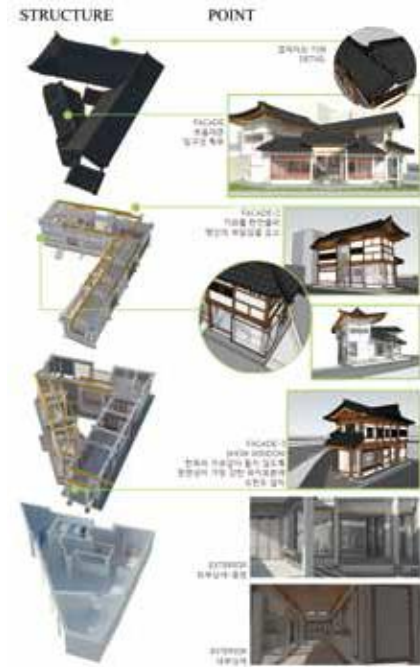
한옥, 대한민국의 전통가옥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는가? 오래전에 지어진 전통가옥은 없고, 21세기에 지어진 “신한옥”만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진짜 한옥의 뿌리를 찾아야 할 것인가. 또한 일제강점기로 인해 사라진 한옥의 근대시기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티움” 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서순라길의 제일 초입부이자 가장 협소한 삼각형 대지에 위치해 있다. 도심의 삼각형 대지가 의미하는 바는 꽤 많다. 어느 길의 초입부를 의미하기도 하며, 그와 동시에 가장 막강한 상업적인 힘을 갖고 있는 대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옥에서는 가장 풀기 어려운 땅의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삼각형으로 깎이는 목구조와 기와의 맞물림은 서로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근대시기를 온전히 겪었고, 그로 인해 한옥이 발전했다면, 아마도 “삼각형 대지에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이 들어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설계는 시작한다.

근대 이전의 한옥은 넓은 평지의 땅에서 여러 채의 가옥을 하나의 군락으로 묶어 가옥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근대를 지나 현대로 도약하면서 우리는 극심한 땅 기움을 겪고 있다. 건물을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극심한 현대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서양의 도시계획이 들어오니 삼각형 모양의 대지는 한옥이 들어설 수 없는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서서히 서양의 도시계획을 받아 들였다면 어땠을까? 재로 또한 회와 나무, 돌, 기와로 이뤄진 전통적인 건축에서 콘크리트와 집성목, 플라스틱 기와로 이루어진 현대의 건축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그러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구조의 시도들과, 현대 건축의 무한한 생각들이 접목되어 현대의 한옥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이 설계에서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자 했다. 길에서 맞닥뜨리는 한옥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위하여 쇼윈도를 설치해 어떤 기능의 한옥인지를 인지하고 동선을 유도한다. 숲을 대문 옆에 벽 대신 벤치를 놓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도를 만들고, 좁은 골목길에서 2층의 한옥을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닌 기와를 한 칸 무른 곳에 나무를 심어 압박감이 중화되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전통 문 살 문양을 루버로 제작하여 현대한옥의 발전을 생각해 보았다. 티움 갤러리는 우리나라 전통 악세사리를 제작하는 공방이자, 전시실이다. 지하 1층에는 공방을 위한 제작 studio가 있고, 1층에는 악세사리 판매실과 전시실, 2층에는 전통 악세사리의 발전 과정을 담은 전시실과 판매대가 있다. 오늘날 서순라길에서 발전한 주얼리 악세사리 대신 우리나라 전통의 악세사리 공방판매 및 전시실이 주된 기능으로 부여하였다.



이 지역은 백반기 이후 끊임없는 급변적인 현대화를 겪으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통해 원초적 구조까지 약화되고, 공간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이전부터 수직의 용도(공용)에서 사용공간(주거)로 전환된 구조로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은 기존의 지역성이 유지되어 온 공간이다. 전통적인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현대 건축의 다양한 구조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을 시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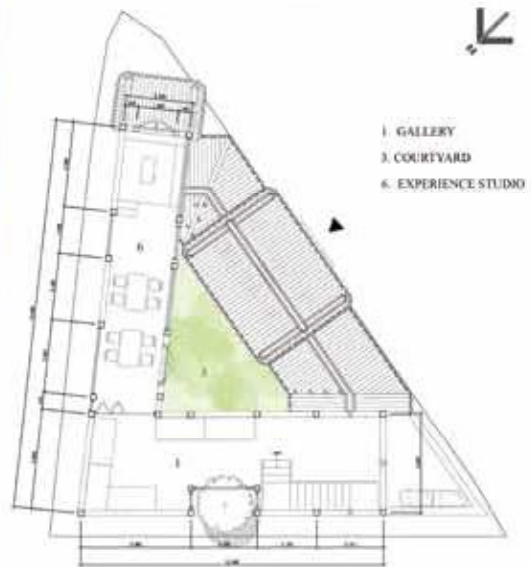
1ST FLOOR NONE SCALE



SITE PLAN NONE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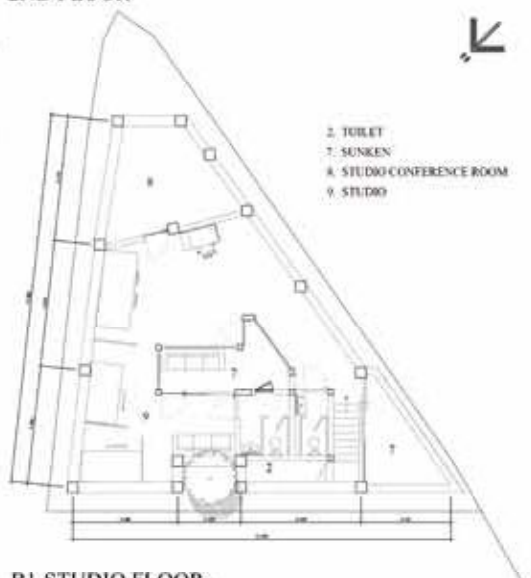
ELEVATION - 2 NONE SCALE



2ND F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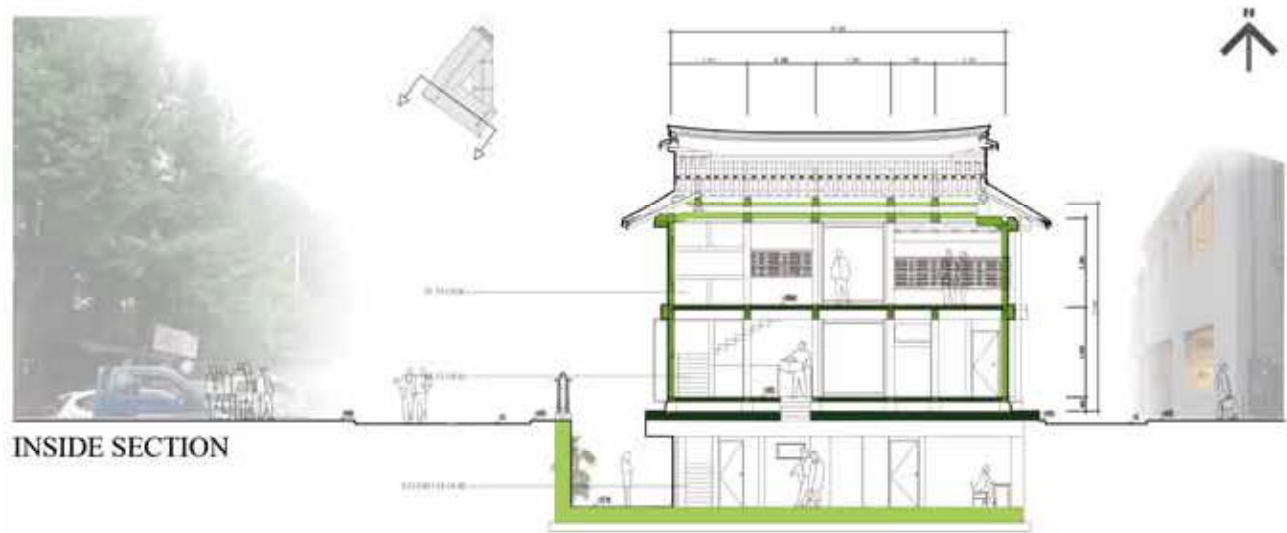
ELEVATION - 1 NONE SCALE



B1-STUDIO FLOOR



SECTION NONE SCALE



INSIDE SECTION

입선 익선동, 거리로 걸어오다

한규선 · 박지수 명지대학교

현대에서 한옥은 건축물로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신축 건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현대 건물일 것이고, 서울에서는 물론, 시골에서도 새로 짓는 한옥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복촌을 비롯한 익선동이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서울에서도 한옥의 모습을 쉬이 볼 수 있다. 그 중 익선동은 20년대 대량 주택 개발에 의해 개량 한옥으로 개발된 지역으로 완전한 전통 한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편리에 의해 개량된 한옥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리이다. '이러한 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옥거리는 현대에 들어서 카페, 식당 등 상업시설로 변모하여 오히려 아기자기한 모습, 볼거리, 먹을 거리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발전하였다. 익선동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좁은 골목골목에 작은 스케일들의 카페, 상점들이 밀집하게 붙어있는 모습일 것이다. 또한 독특한 컨셉의 가게들과, 한옥을 유지하며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런 독특한 모습에 익선동을 찾게끔 하고 있다. 익선동 골목의 모습은 대부분 단층 한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접근하는 동선이 많은 남측 접근에선 4~5층의 상가 건물들이 위치해 있다. 익선동의 한옥이 밀집된 지역의 접근에 있어서는 외곽에 높은 상업 시설들로 둘러싸여 그 모습이 가려지고 있다.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접근 자체가 좁은 골목으로 시작하는 것은 시작점도 모호하며, 자칫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헤매이기도 쉬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새로 생기는 건물은 사람들의 발길을 익선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하려 한다. 큰 길에 대해서는 익선동을 이루고 있는 한옥의 모습으로 진입부 역할을 하고, 골목들로 연결하여 익선동으로 유도하며, 내부의 전체적인 형태는 수평의 골목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입체적으로 익선동을 닮아 있는 모습이 건물에서 전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로변에서 접근이 더 용이하게 하면서 익선동을 닮은, 익선동 한옥거리의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상업 시설로, 올라가는 계단, 3층 테라스를 통해 익선동을 내려다 볼 수도 있고, 1층에선 여러 곳으로 접하고, 2~3층으로 갈수록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익선동 거리를 제안할 수 있다.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 118
용도	상업시설
구조	목구조 + 콘크리트
대지면적	707.28㎡
건축면적	573.94㎡
층수	3층

Intro

현대에서 한옥은 건축물로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신축 건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현대 건물일 것이고, 서울에서는 물론, 시골에서도 새로 짓는 한옥을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는 복촌을 비롯한 익선동이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서울에서도 한옥의 모습을 쉬이 볼 수 있다. 그 중 익선동은 20년대 대량 주택 개발에 의해 개량 한옥으로 개발된 지역으로 완전한 전통 한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편리에 의해 개량된 한옥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리이다.

'이러한 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리로 변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옥거리는 현대에 들어서 카페, 식당 등 상업시설로 변모하여 오히려 아기자기한 모습, 볼거리, 먹을 거리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발전하였다. 익선동의 가장 큰 특징은 좁은 골목골목에 작은 스케일들의 카페, 상점들이 밀집하게 붙어있는 모습일 것이다. 또한 독특한 컨셉의 가게들과, 한옥을 유지하며 리모델링을 통하여 사람들은 이런 독특한 모습에 익선동을 찾게끔 하고 있다. 익선동 골목의 모습은 대부분 단층 한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접근하는 동선이 많은 남측 접근에선 4~5층의 상가 건물들이 위치해 있다. 익선동의 한옥이 밀집된 지역의 접근에 있어서는 외곽에 높은 상업 시설들로 둘러싸여 그 모습이 가려지고 있다.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접근 자체가 좁은 골목으로 시작하는 것은 시작점도 모호하며, 자칫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헤매이기도 쉬울 것이다.

Design Element

단위 매스의 모습들은 한옥의 모습이자 익선동에서 많이 보이는 'ㄷ' 형태의 매스를 기본으로 사선의 길과 매스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변형, 적용한다.

사선의 길은 대로변에서 한 개의 골목길에서는 보이지 않는 익선동의 모습이 다른 방향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입체 스케일도 익선동 내부 골목의 스케일과 비슷하도록 하여, 기존의 익선동과 연속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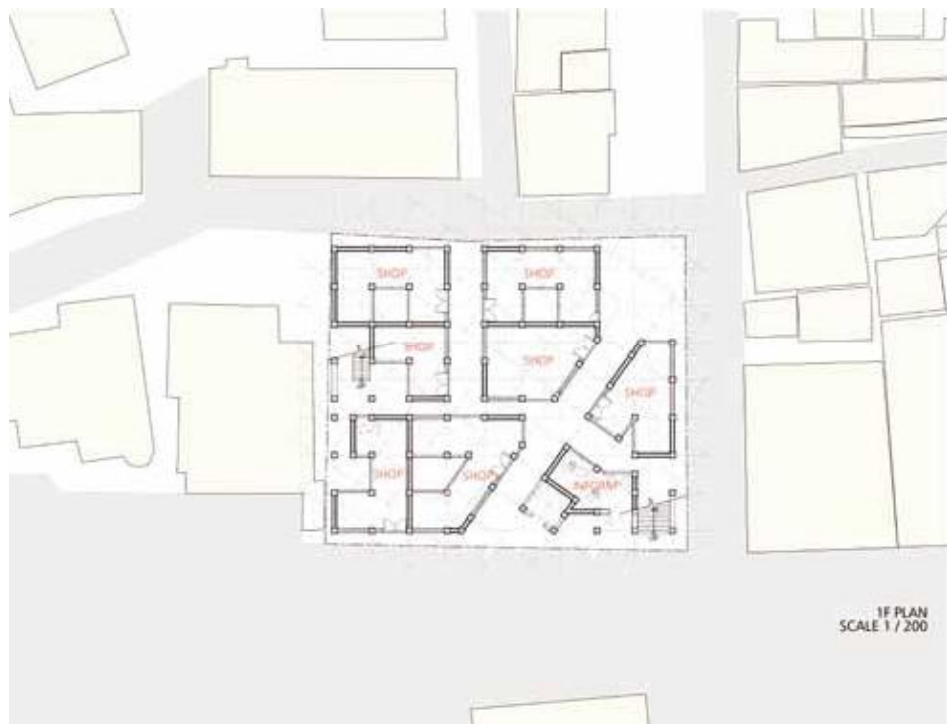
SITE

익선동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좁은 골목골목에, 작은 스케일들의 카페, 상점들이 밀집하게 붙어있는 모습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거리가 독특한 모습에 익선동을 찾게 된다.

익선동 골목의 모습은 대부분 단층 한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접근하는 동선이 많은 남측 접근에선 4~5층의 상가 건물들이 위치해 있다. 익선동의 한옥이 밀집된 지역의 접근에 있어서는 외곽에 높은 상업 시설들로 둘러싸여 그 모습이 가려지고 있다. 사람들의 수요에 비해 접근 자체가 좁은 골목으로 시작하는 것은 시작점도 모호하며, 자칫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헤매이기도 쉬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새로 생기는 건물은 사람들의 발길을 익선동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하려 한다. 큰 길에 대해서는 익선동을 이루고 있는 한옥의 모습으로 진입부 역할을 하고, 골목들로 연결하여 익선동으로 유도하며, 내부의 전체적인 형태는 수평의 골목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입체적으로 익선동을 닮아 있는 모습이 건물에서 전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로변에서 접근이 더 용이하게 하면서 익선동을 닮은, 익선동 한옥거리의 입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상업 시설로, 올라가는 계단, 3층 테라스를 통해 익선동을 내려다 볼 수도 있고, 1층에선 여러 곳으로 접하고, 2~3층으로 갈수록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익선동 거리를 제안할 수 있다.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처 | 국토교통부

전 화 | 044.201.3783

팩 스 | 044.201.5574

인쇄일 | 2018년 12월

발행일 | 2018년 12월

기 획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044.417.9600)

편집·인쇄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2018©국토교통부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교통부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